

2013
제32권 2호
통권 174호

홍성문화

- 홍주목사 홍가신 | 조원찬
- 홍동면 팔래리 김성오씨 가옥 | 한종구
-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 2 | 한건택
- 조선시대 홍성지역의 제지세력 1 | 김경수
- 삼준산 주변에 전해오는 전설들 | 김정현
- “물레길”을 따라 마음을 따라
- 김유정 문학촌과 남이섬을 다녀와서 | 정명순
- 노블 오카리나 이종근 사장 | 조성미
- 민주 인권의 성지 광주를 찾아서 | 김정명
- 아름다운 약속 | 최규원
- 보개산의 보물 연산서씨 석보 | 서용희
-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 04_ 논단 - 홍주목사 홍가신 (조원찬)
- 20_ 논단 - 홍동면 팔래리 김성오씨 가옥 (한종구)
- 41_ 논단 -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 2 (한건택)
- 48_ 논단 - 조선시대 홍성지역의 재지세력 1 (김경수)
- 57_ 홍성의 전설 - 삼준산 주변에 전해오는 전설들 (김정현)
- 67_ 기행문 - “물레길”을 따라 마음을 따라
- 김유정 문학촌과 남이섬을 다녀와서 (정명순)
- 76_ 나의 삶 나의 예술 - 노블 오카리나 이종근 사장 (조성미)
- 84_ 시
- 90_ 내마음의 여행 역사체험기 - 민주 인권의 성지 광주를 찾아서 (김정명)
- 101_ 수필 - 아름다운 약속 (최규원)
- 104_ 홍성의 문화재 - 보개산의 보물 연산서씨 석보 (서용희)
- 108_ 문화원의 문화사업 -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 110_ 사진 -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 118_ 2013 하반기 문화원 행사
- 124_ 2013 홍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홍주목사 홍가신

- 이몽학의 반기를 제압하다 -

조원찬 |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사

I. 머리말

홍주목은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오서산과 가야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사이로 삽교천, 무한천, 역천 등의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형성된 예당평야가 북쪽으로 넓게 자리하고 있다. 한편, 홍주의 기후는 대체로 겨울 연평균 기온이 -3°C 이하이다. 온대 기후인 것 같지만, 냉대 기후가 시작되는 곳이다. 따라서 홍주를 경계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논농사보다는 밭농사의 비율이 많아진다. 홍주의 농업 생산력이 내포 이북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주의 교통은 바다와 가까워 일찍부터 뱃길이 발달하였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조운선이 한양으로 갈 때 반드시 홍주를 경유해야 했고, 그 결과 홍주가 서해안 뱃길의 요충지로서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홍주의 뱃길은 중앙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왜구나 이양선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역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¹⁾

1) 홍성에서 한양으로 갈 경우 홍주목의 대진(大津, 현재의 당진군 송악면 한진나루)에서 평택의 만호리 포구를 거쳐 가는 길이 큰 길이었다(대동여지도의 도로망). 아울러 내포 뱃길의 발달은 아산의 공세호와 덕산의 유궁포, 홍주의 광천, 서산의 성연 등의 포구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중환의 『택리지』복거총론). 이러한 상황은 방언·민요·시조 등에서 한양·경기지역과의 문화적 전이현상이 나타난다(임병조, 내포지역의 구성과 아이덴티티에 관한 연구). 한편 한양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은 중앙 정부와 권세가들의 수탈이 내포지역에 많아지게 된 역기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내포의 농민들은 지배층에 대한 저항의식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중앙 정부에서는 내포의 인심이 사납다고 표현하였다(박찬승,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특징). 이에 박찬승은 내포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다양성, 개방성, 진보성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홍주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백제의 부흥운동과 흑치상지, 고려의 민족 재통일과 공준, 고려 불교 최후의 큰 스님 보우, 왜구의 격퇴와 최영, 단종 복위운동과 성삼문, 임진왜란의 의병과 이광륜, 청난공신 홍가신,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은 한원진, 한말 홍주의 병장 김복한, 3·1운동과 한용운, 청산리 대첩과 김좌진, 고수와 춤꾼의 대가 한성준,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한 예술가 이응노 등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홍주 출신의 인물들, 또는 홍주목 지역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홍주목사 홍가신에 대하여 홍가신의 시장(諡狀)과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고 홍주목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홍가신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산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홍가신의 가계와 생애

1. 가계와 관직 생활

홍가신(洪可臣, 1541~1615)은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로서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흥도(興道), 호는 만전당(晩全堂)·간옹(艮翁)이다. 아버지는 장원서(掌苑署) 장원(掌苑)을 지내고 영의정에 추증된 온(溫), 할아버지는 내섬시(內贍寺) 판관을 지내고 이조 판서에 증직된 창(昌), 증조할아버지는 이조 참의를 지내다가 연산군 때 귀양 가서 죽었지만 중종반정 후 이조 참판에 증직된 한(瀚), 어머니는 군수 신윤필(申允弼)의 딸이다.

민순(閔純)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1567년(선조 즉위) 식년시 진사에 합격하였다. 1571년(선조 4) 전랑의 천거에 따라 강릉(康陵) 참봉이 된 후,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아



▲ 홍가신 영정

이조가 추천한 6품 산림 승진 대상자가 되어 처음에는 예빈시 주부에 있다가 형조좌랑을 지냈다. 그해 가을에 지부여현사(知扶餘縣事)로 나갔다가, 1578년 지평을 거쳐, 1582년 장령을 지냈다.

1584년 안산군수를 지내고, 1588년 수원부사로 있을 때 구황(救荒)의 공이 있어 표창을 받았으나, 평소에 정여립과 가까이 지낸 이유로 1589년 정여립의 모반 사건 때 파직 당하였다. 1593년 파주목사를 거쳐, 1594년 홍주목사가 되었다.

1596년 이몽학(李夢鶴)이 반란을 일으키자 민병을 규합해 무장 박명현(朴名賢)·임득의(林得義) 등과 함께 난을 평정하였다. 1599년 강화 부사를 거쳐, 1603년 형조 참판·강원도 관찰사·개성부 유수 등을 지냈다. 1604년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청난공신(淸亂功臣)²⁾ 1등에 오른 뒤, 1605년 형조 판서가 되고, 정헌대부로 품계도 높아졌으며, 이어서 개성 유수가 되었다. 1606년 영원부원군에 봉해졌다. 1609년(광해군 1) 개성부 유수에서 물러나 아산에 내려와 살다가 1610년 모든 벼슬을 반납하고, 1615년 75세로 돌아갔다. 1693년(숙종 19) 시호로서 문장(文壯)을 받았다.

2. 어려서부터 학문에 신통함을 보이다

홍가신은 어머니 신씨 부인이 자신을 낳은 뒤 병환이 위독해서 온 집안이 황급한 나머지 여러 날 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어머니의 병이 조금씩 차도가 있게 되자 한숨을 돌린 집안 어른들이 비로소 홍가신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미 죽었거니 생각하면서 이불을 열고 아이를 보니 얼굴과 눈에서 아름다운 빛이 보여 모두 기이하게 생각하였다.

태어난 지 겨우 8개월 만에 말을 하고 걸었으며, 8세 때 아버지인 의정공(議政公) 홍온(洪溫)을 따라 산불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시를 짓게 했더니 즉시 대답하기를, “조나라의 성벽에 갑자기 한신의 깃발이 서네.”라고 하여 아버지가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13세 이전에 이미 소학과 사서, 시경, 서경, 자집 등을 보았는데 암송하는 것이 널리 통하였으며 성음이 크고 우렁찼다. 필법과 시운이 모두 세속의 기상이 없었으니 집안의

2) 1604년 영의정 이항복, 우의정 김명원 등의 제의에 따라 3등으로 구분해 공신으로 임명하였다. 1등 홍가신은 분충출기합모적청난공신(奮忠出氣合謀迪義淸難功臣), 2등 박명현과 최호는 분충출기적청난공신(奮忠出氣迪義淸難功臣), 3등 신경행·임득의는 분충출기청난공신(奮忠出氣淸難功臣) 등을 각각 받았다. 이때 1등에게는 본인과 아버지·처자에게 3등급의 품계를 올려 주고, 아들이 없으면 조카·사위에게 2등급의 품계를 올려 주며, 녹봉은 적장자가 세습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상으로 반당(伴當, 호위병) 10인, 노비 30구(口), 구새(丘使, 호종하는 관노) 7인, 전(田) 1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殿馬) 1필을 주었다. 2등과 3등에게는 각각 급을 낮추어 지급하였다.

여러 어른들이 모두 크게 칭찬하였다. 관례(冠禮)를 행한 뒤에는 사귀는 벗들이 모두 학문으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1567년(선조 즉위)에 식년시 진사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에 나아가 공부할 때, 사람들이 더러 웃기도 하였지만, 말과 행동을 함에 한 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에 1571년(선조 4)에 천거되어 강릉 참봉을 제수 받았고, 1574년(선조 7)에는 재주와 행실이 뛰어나다고 하여 이조가 추천한 6품 산림 승진 대상자가 되어 처음에는 예빈시 주부를 받았지만 곧바로 형조 좌랑으로 옮겼다.

3. 목민관으로서 모범을 보인다

1574년 가을에 지부여현사(知扶餘縣事)로 나갔는데, 백성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삼고 고을을 깨끗하고 간결하게 다스렸다. 여가에는 독서하면서 고을 안의 자제와 이웃 고을의 선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와서 배우려는 자가 있으면 받아들이고 가르쳐 학문을 신장시켰다. 또한 부여현이 옛 백제의 도읍지이므로 백제의 충신 성충(成忠)·흥수(興首)·계백(階伯)의 사당을 세웠고, 고려의 정언(正言)으로서 신돈을 배척하다가 일찍이 이곳에 유배되어왔던 이존오(李存吾)의 일을 알고 의열사(義烈祠)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임기가 만료되고 중앙의 지평(持平)으로 나아갈 때 고을 백성들이 연임시켜 주기를 청하였고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석을 세우고 시가를 새겨 홍가신의 아름다움을 기렸다.

1593년(선조 26)에 파주 목사(牧使)에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파주는 서남향으로 통하는 길을 총괄한 곳이어서 극심한 전쟁의 화를 입었는데, 이때 명(明)나라 장수가 경내에 들어와 이틀 동안을 굶게 되자 크게 성을 내면서 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이 이르러 만나기를 청하자 명나라 장수가 공의 예의범절이 비범한 것을 보고는 즉시 예를 갖추어 말하기를, “고을에 군량이 부족한 것은 모두 고을의 기강이 해이하고 향리들의 죄이다.” 하니, 공이 손을 저어가며 말하기를, “죄가 실로 목사에게 있으니, 목사가 어찌 감히 죽기를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명나라 장수가 두 손을 들면서 말하기를, “무릇 인정(人情)은 모두 잘못된 것을 남에게 미루려고 하기 마련인데, 지금 대인만은 유독 그렇지 않으니 남보다 훨씬 낫습니다.” 라고 하였다. 공은 이에 관가에 통보하여 쌀 수백 석을 얻어 급함을 해결하였다. 오래지 않아서 조정에서 문관이 군무(軍務)를 맡아 적을 막는 것이



▲ 홍주아문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무신(武臣)을 대신 임명하였다. 공이 고을을 떠나는 날 고을 백성들이 노소 없이 나루까지 나와 울부짖다가 돌아갔다.

1594년(선조 27) 1월에 특별히 교지를 받고 홍주 목사가 되었다. 이때 광해군(光海君)이 분조(分朝) 활동³⁾을 하며 전주를 거쳐 1594년 2월 23일 홍주로 옮겼는데, 광해군을 따르며 호위하는 문무 관원들이 각자 처자를 데리고 다니며 갖가지로 토색질을 하였다. 이에 홍가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며 법과 예에 따라 지급하는 외에 사사로이 1문(文)의 돈도 주지 않았다. 그러자 궁인들과 내시 무리들이 번갈아 미워해 유언비어를 퍼뜨려 비방했지만 공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또한 왜적의 난리가 평정되지 않아서 한 치의 앞을 헤아리기 어려웠던 때라, 바닷가 수령들은 대부분 선박을 마련해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홍가신만은 유독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혹 그 까닭을 물으면 공은 대답하기를, “혹시 불행한 일이 있게 되면 나는 나라를 위해 죽고 처자는 나를 위해 죽을 것이거늘, 어찌 미리 몸을 온전히 하여 처자를 보호할 계책을 하겠는가?”하니, 듣는 자들이 감복하였다.

4.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다

1596년(선조 29) 7월 1일 충청도 홍산의 서인 이몽학이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 이몽학은 왕실의 서족으로서, 호서에서 종군할 때 조련 장관이 되어 부여 무량사에 있으면서 선봉장 한현(韓絢) 등과 친교를 맺었다. 이몽

3)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으로 선조가 요동으로 망명할 것에 대비하여 임금을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렸던 임시 조정. 이때 의주의 행재소(行在所)를 '원조정(元朝廷)'이라 하고 세자가 있는 곳을 '분조(分朝)'라 하였다.

학은 어리석고 아무 재능이 없었으나 한현은 본시 서얼 출신이었지만 영악스럽고 꾀가 많았다. 당시 국가는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을 가지고 군사를 배치하고 기량을 훈련시켰다. 이때 한현은 권인룡·김시약등과 함께 모두 서인으로 응모하여 함께 선봉장이라 호칭하면서 어사 이시발(李時發) 군에 소속되어 호서의 군사 조련을 관할하였는데 민심이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크고 작은 고을에 모두 방비가 없음을 보고 이 틈을 타서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현이 마침 부친상을 당하여 홍주에 가게 되자, 우선 이몽학을 시켜 거사하도록 하고 자신은 내포(內浦)에서 만나 서로 호응하기로 약속을 정하였다.



▲ 부여 무량사 극락전

이몽학은 무량사의 굴속으로 잠입하여 중들과 더불어 깃발과 무기를 만들었다. 더불어 호서의 풍속에 따라 동갑회(同甲會, 노소귀천을 막론하고 동갑마다 깃발을 세우고 그 갑년을 써 놓으면 무리들은 각자 그 동갑을 찾아 모여 들어 술을 마시며 즐기는 모임)

를 만들고, 그 패거리를 시켜 계(契)를 만든다고 선전하며 동네 어귀 들판으로 모이게 했다. 절에서 출병(出兵)하여 마을 안으로 들어온 이몽학은 깃발을 세우고 절상에 앉아 각(角)을 불고 북을 치면서 큰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동갑 모임 중에서 공모한 장정이 먼저 나와 칼을 뽑아들고 무리를 데리고 달려 나갔다. 이몽학은 그들에게 속임수로 꾀기를 “이번에 일으킨 의거는 백성을 편안히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이다.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떠들면서 그를 따랐으며, 사람마다 스스로 고관대작이 될 것으로 여기고 성불(聖佛)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였다. 승려와 속인을 장군으로 나누어 배치하고 문관과 무관 등의 청현직으로 가칭하니 사족 자제와 무뢰배들이 많이 그들에게 붙었다.

그날 밤에 이몽학은 홍산현을 습격하여 현감 윤영현(尹英賢)을 사로잡고, 이어서 임천군수 박진국(朴振國)도 사로잡았다. 모두 항복하여 이몽학에게 붙으니 상빈(上賓)으로 대우했다. 이어서 청양, 정산 등 6개 고을을 함락시켰는데, 수령들은 모두 먼저 도망치고 아전과 백성들은 적들의 호령에 따르며 술과 음식을 차려서 맞이하였으며 군사를 뽑아 그들에게 가세하였다.

이에 소문만 듣고도 호미를 던지고 그들에게 투항하는 자가 줄을 이어 군사가 수만 명에 달하였다. 나아가 이몽학이 “충용장(忠勇將) 김덕령과 의병장 광재우·홍계남 등도 모두 군대를 연합할 것이며, 병조판서 이덕형이 내응할 것이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자, 각지의 민심이 더욱 술렁거렸다.

처음에 이몽학은 곧장 서울로 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리들이 질서를 잃고 통제가 어려워지자 홍주에 있는 한현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한현이 이미 면천군수 이원(李瑗)에게 체포되자 결국 홍주를 공격하게 되었다. 앞서 한현이 이몽학에게 말하기를, “군사들의 예리한 세력을 타고 곧장 서울로 가는 것이 상책이요, 겉으로 성곽 없는 고을을 공격하는 것이 중책이요, 홍주를 진격하는 것이 하책이다.”라고 하였는데, 한현이 초상을 당하고 홍주로 간 이후로 이몽학은 그 계책을 쓰지 않고 곧장 홍주를 공격한 것이다. 이에 한현은 기미를 미리 알고 몰래 면천으로 도망쳤다가 면천군수 이원에게 잡혀서 옥에 갇혔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주는 당시 병력이 수백 명에 불과하고 성도 작고 낮아서 대부분이 성을 버리고 왕의 군대와 함께 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홍가신이 탄식하며, “나라를 지키는 신하는 성곽(城郭)이나 나라 안에서 죽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 내가 명을 받고 이 땅을 지키는데, 급하다고 해서 어찌 떠나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처자를 내보내 피하도록 권하는 자가 있었으나 공은 모두 듣지 않으며 성 밖에 있는 자손과 친척을 다 성안으로 불러 모아 문을 닫고 함께 죽을 뜻을 보이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굳게 되었다. 이어서 홍가신은 민병(民兵)을 모으는 한편 홍주에 사는 무장



▲ 홍주읍성

임득의(林得義)·박명현(朴名賢)과 전 병사(兵使) 신경항(辛景恒) 등을 불러서 성을 지킬 계책을 논의하였다. 또한 수사(水使) 최호(崔湖)가 홍가신을 수영으로 오라는 격문을 보내자 공이 따르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홍주는 호서의 목구멍과 같은 곳인데 내가 한걸음만 물러나도 적이 반드시 이긴 시세를 타게 될 것이다.”하고는 도리어 최호를 그곳으로 오게 해 함께 홍주읍성을 지키자고 하였다. 한편 남포현감 박동선(朴東善)이 변란의 소식을 듣고 수사 최호에게 급히 알리고 군병을 동원하여 홍주를 구원하자고 하였는데, 최호가 “수군(水軍)은 육지에서 싸우는 병사가 아니다.” 하면서 난색을 표했다. 동선은 큰소리로 “지금이야 정말 어느 때인데 수군과 육군의 다른 점을 말하는가.” 하였다. 드디어 최호가 수영에 있는 군병을 모두 동원하고 보령현감 황응성(黃應聖)을 시켜 군사를 소집하여 함께 홍주성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홍주성은 원병을 얻어 크게 기뻐하여 성 머리로 나와 서고, 밤이 되자 성 가퀴에 횃불을 벌려 세우자 성 안팎이 환히 밝아지니 기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에 홍가신은 무장(武將) 박명현과 임득의, 제찰사 종사관 신경행, 수사 최호 등과 함께 힘을 합해 군사를 나누어 성을 지킬 계책을 세우며, 성 밖에 연이어 있는 민간의 초가집들을 그대로 놓아두면 적들이 비를 피하고 밥을 해먹기에 편리하다고 하여 밤에 불화살을 쏘아 모두 태워버렸다. 최호와 성을 나누어 지키면서 최호에게는 온전한 곳을 주고 자신은 틈이 있는 곳을 맡아 친히 군사를 위로하고 그릇을 들고 음식을 나누어주며 죽음으로써 지킬 것을 맹세하자 군사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나 적이 홍주읍성에 이르러 진을 치고 세 곳에 나누어 주둔하여 혹 말을 달려 돌진하여 위압감을 주기도 하고, 혹은 여기저기 돌며 성을 포위하는 형상을 지으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하였다. 그러나 홍가신은 성 안에서 조용히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망루(望樓)를 엄히 하고 군대를 정돈하여 침범할 수 없는 형세를 보이자 적이 공격할 계책이 궁색해지고 기가 꺾여 머뭇거렸다. 또한 홍가신은 적이 진격하며 압박할 때에 한현의 심복인 이익남이라는 자가 200여명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몰래 야근처럼 해서 모퉁이로 성안에 들어와 적을 위하여 내응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일에 앞서 정황을 살펴 그 수족을 붙잡아 매어 간악함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여, 적이 계책을 잃고 간담이 깨뜨려진 것이 진실로 여기서부터 말미암았다.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자 적이 동네 사이로 흩어지면서 매우 소란해졌다. 홍가신이 말하기를, “오합지졸(烏合之卒)인 적도들이 소란을 떠니 격파할 수 있다.”하고는 관아 울타리를 뜯어내고 무기고에 보관된 대

나무로 햇불을 만들어 성첩(城堞)을 지키는 군졸에게 주고 또 궁노수(弓弩手) 수백 명을 선발해 성을 나가 뱃노 속에 매복해 있게 하면서 경계하기를, “성안에서 불을 들어 신호하기를 기다려 쏘라.” 하였다. 밤중이 되어 성첩을 지키는 자들이 세 번 불을 들어 신호를 보내고 또 성 위에서 화전(火箭)을 쏘아 적이 머물고 있는 집을 불태우자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맹렬하게 치솟아 위아래가 온통 붙었는데, 성안에서 북을 울려 위세를 돋우니 천지가 진동해서 적이 놀라 혼란에 빠졌다. 그때 공이 보낸 궁노수 수백 명이 일시에 모두 일어나 활을 쏘아 적을 무수히 죽였으므로 적은 크게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온양에 주둔하고 있던 충청도 병사 이시언(李時言)이 도원수 권율에게 요청한 호남지역의 부대가 충용장 김덕령 등의 지휘를 받으며 부여 석성까지 이르렀다.

결국 성을 함락시킬 수 없음을 안 이몽학은 이튿날 군대를 이끌고 덕산길로 향하면서 장차 김덕령, 홍계남의 군대와 합류하여 곧장 한양으로 들어가겠다고 떠벌었는데 따르던 무리들이 불신하기 시작하고 도중에서 도망치는 자가 속출하였다. 이 와중에 이몽학의 무리 가운데 임억명과 김경창이 이몽학의 머리를 베어 가지고 투항해 왔다. 이에 박명현 등이 성문을 나가서 추격하자 적도들은 모두 흩어졌다. 도원수 권율이 수색 명령을 내려 각 고을에서 이몽학의 반란군을 잡아 신문하여 자복을 얻어낸 뒤 모두 한양의 감옥으로 압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지의금부사 윤승훈(尹承勳)이 직산에 내려와 죄인들을 심문해서 경중을 가렸는데, 꼬임을 당했거나 위협을 못 이겨 가담한 어리석은 백성들은 가벼운 법을 적용해서 석방하고, 한양으로 송치된 자는 1백여 명이었다. 형벌이 정해진 자들은 법에 따라 연좌시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1602년(선조 35) 홍가신은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청난공신 1등에 오르고, 영원부원군(寧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아울러 홍가신은 1619년(광해군 11) 아산의 인산서원(仁山書院)⁴⁾에 추가로 배향되었고, 정퇴서원(靜退書院)⁵⁾을 각각 세워 그의 뜻을 기리고, 홍주 사람들은 비석을 세워 그의 공을 기리며 ‘홍양청난비(洪陽淸難碑)’라고 불렀다.

4) 1610년(광해군 2) 김광필·정여창·조광조·이언적·이황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1619년(광해군 11) 홍가신이 추가로 배향되었고, 1668년(현종 9) 기준·이지암·이덕민·박지계 등이 추가되었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진 후 복원하지 못하였다.

5) 1634년(인조 12)에 조광조·이황·맹희도·홍가신 등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같은 해 별도로 충효당(忠孝堂)을 세우고 이순신·강봉수를 모셨다. 1692년 조상우·강백년·윤현 등이 추가로 배향되었고, 1705년 조이후가 추가되었다. 1871년(고종 8)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진 뒤 복원하지 못하였다.

5. 관련 유적

가. 홍양청난비(洪陽淸亂碑)

홍양청난비는 홍성읍 서쪽에 위치한 월산의 산혜암 입구에 있다. 본래 홍성읍 소재지에서 예산방면으로 약 2km 도로변에 있었던 것을 옮겨 세웠다. 조선조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세운 이 비는 팔작지붕의 정·측면 1칸 건물 안에 거북받침을 놓고 그 위에 높이 145cm, 폭 70cm, 두께 21.5cm의 비신(碑身)을 세웠다. 1641년(인조 19) 김광현(金光鉉, 1584~1647)이 건립하였는데,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의대부 원임 사헌부 대사헌 김광현 전(篆)하다.

지난 만력 24년 역적 이몽학이 호내(湖內)에서 군사를 일으켜 6개 읍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2명의 고을 수령을 포박하여 세력이 원근에 떨쳤다. 그때 홍주목사 만전 홍공이 문관으로 외롭게 성을 굳게 지키고 며칠 안 되어 도적을 베어 없애니 선조 대왕이 가상히 여겨 글을 내리고 벼슬을 더해 주었다. 또 명하여 협아(莢俄)라 쓰게 하고 다시 청난공신 호위 2품을 내리고 영원군에 봉하니, 이때 사대부로부터 시골의 농부와 아낙네에 이르기까지 공의 이름을 부러워하고 알면서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하물며 공이 굶주린 범이 있는 좁은 길에서 구해내어 자리 위에 편안히 놓아준 은혜를 입은 홍주의 백성들은 어떻겠는가. 그 공을 기림이 마땅히 끝이 없어야하나 초상을 그려놓은 사당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공덕을 사랑하는 기림이 40여년이나 잠잠하였으니 어찌된 일인가?

가정(嘉靖) 연간에 복건(福建)의 안찰사 종신 자상이 섬나라 오랑캐가 복건을 유린함을 당하여 깨끗이 성문을 열어 도적을 물리쳐 백성들이 오석산에 사당을 세우니 덕을 노래하여 새겨놓은 현판이 쇠미하여지지 않았다. 지금 홍공이 홍주의 백성들을 살린 것이 자상에 비교하여 뛰어나지만 이에 이르지 못하고 난을 평정한 충렬은 자상이 기약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찌 홍주만이 오석산처럼 조그만 자리와 좋은 제물을 놓는 돌 하나가 부족하단 말인가. 비록 풍속이 좋지 못하다 해도 또한 그렇다.



▲ "문장"이라는 시호를 받은 교지



▲ 홍양청난비

금년 봄에 완산 이공이 은대의 대연으로 있다가 이 고을에 부임하여 드디어 홍공의 일을 개연히 여겨 고을의 부로(父老)들과 도모하여 묘당 자리를 잡고 비석을 갖추어 놓고, 한양의 조경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원컨대 당신의 한 말씀을 빌려 만전공의 충절과 덕을 드러내어 보이 고자 합니다.”하며, 재주 없다고 말하였으나 어쩔 수 없어서 말한다.

홍양은 큰 방어지이니 홍양을 잃게 되면 호내(湖內)를 잃는 것이요, 호 내를 잃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었을 것인가. 만전공이 홍양을 지킨 것이 어찌 다만 일시의 공이겠는가. 처음에 도적들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일어난 것은 공격하여 겁탈하기에 이로워서이지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임진년의 난리와 계사년의 기근 뒤에 불만이 있는 백성들을 꺾어서 각 고을을 공격하려고 함이 오래되었는데, 이때부터 도적들 중에 눈치 빠른 염탐꾼들이 아전과 백성들 사이에 섞여 있었으니 이것이 다른 도적들에 비하여 어려운 것이었다.

병신년 7월 7일 정산현에서 공에게 일이 급함을 보고하자, 공이 즉시 아전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사수할 것을 깨우치며 두루 격문을 돌려 주변 고을의 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으나 성 안에서 군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백 명도 되지 않고, 성 또한 얇고 낮아 사람들이 간혹 성을 버리고 임금을 호위하자고 하였으나 공이 말하기를 “나라를 지키고 방어해야 할 신하가 봉해진 강역의 성곽에서 죽는 것은 옛날의 법도이다. 내가 봉강의 신하가 아닌가?”라 하고, 또 처자식을 피신하도록 권하니, 또 공이 말하기를 “나는 나라에서 죽고 처자식들은 나에게서 죽는 것일진대 의리를 상하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밖에 있던 자손들을 모두 불러들여 모두 성 안에 있게 하였다. 이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어 보따리를 매었던 자들이 그만 두었고, 담장 밑에 숨어있던 자들이 떨치고 일어났으며, 수하의 아전들이 기강을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수사 최호가 공에게 격문을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진영에 합세 하자고 하였으나 공이 받아들이지 않고 말하기를 “호내에서의 목구멍 같은 곳은 이 고을만한 곳이 없다.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적이 반드시 파죽지세로 공격할 것이니 오히려 호내를 중요시하여 같이 고을을 지키자.”라고 하니, 최호가 공의 말을 그럴 듯이 여겨 남포와 보령 2읍의 현감을 거느리고 오니 군세가 점점 진작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전투를 하는 것은 반드시 무사들의 힘을 빌려야 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자, 파총 임득의(林得義)가 말하기를 “우후 박명현은 이 고을 출신으로 일당백의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집에 있으니

공이 편지로 불러 이르게 해서 전투를 맡기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공이 또 말하기를, “내가 방어 장비를 갖추지 못했으니 누가 이때 능히 적을 며칠간 머물게 하여 우리가 성을 지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고 하자, 고을 아전 이원명(李元命)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어 공이 이원명으로서 적에 출입함을 불문에 붙여 한현(韓絢)이 도적의 괴수임을 알았고, 적 가운데 25인을 사로잡아 베어 동문에 목을 걸어 놓았으니 이원명의 공이 컸다. 공이 또 숨어서 듣는 자를 붙잡아 베고, 수사와 성을 나누어 지키는데, 견고하고 안전한 곳을 수사에게 미루어 주고, 자신은 약한 곳을 맡았으며, 친히 딱따기를 치며 걸어서 순찰하고 친히 군사를 위로하며, 손수 음식을 가져다가 먹이고 힘쓰게 하며, 말을 하면 문득 강개(慷慨)하여 하늘을 가리키며 죽음을 맹세하니 성 안의 백성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며칠이 지나자 도적들이 대흥으로부터 크게 이르러 성 아래에 세 곳으로 나누어 주둔하였는데, 왼쪽에서는 성을 포위하고 오른쪽에서는 장황하게 공갈하며 백마를 탄 장수가 세 번이나 성을 돌다가 달려들어 돌진하며 그 요망하고 악한 말을 많이 하여 성 안을 동요시키려 하자, 공이 성중에 명을 내려 가만히 대응이 없는 것처럼 하고 성루에 정렬하여 학 날개처럼 펼치고 범할 수 없는 빛을 보일 뿐이었다. 도적들이 이때 계략이 부족하여 머뭇거리고 있을 즈음에 날이 저물면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 적의 무리들이 벌이나 개미처럼 전열이 어지러워지면서 흐트러지게 되었다. 공이 말하기를 “적들이 전열을 못하고 시끄럽기만 하니 저들을 가히 깨뜨릴 계획이 있다.”하고, 관청의 울타리를 거두고 무기고의 대나무를 취하여 횃불을 만들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람마다 횃불 세 개를 불태우게 하고, 궁수 수십 명을 선발하여 밤에 밧줄을 타고 성에서 내려와 논두렁 가운데에 엮드려 있다가 성 안에서 횃불을 드는 것을 살피서 적에게 화살을 어지러이 쏘게 하고, 성 위에서는 다시 불화살을 쏘아 비적들의 막사를 불태우니 불길이 치열하고 바람이 매섭자 이에 성 안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일시에 북을 치며 사방에서 소리를 지르자 도적들이 크게 놀라 드디어 어지러이 숨고 도망가자 박명현 등이 추격하여 섬멸하니, 도적의 무리 중에 임억명이 이몽학의 목을 베어 가지고 왔다. 다음날에 계책으로 또 한현을 붙잡아 수레에 태워 한양으로 보내니 공로를 책봉함에 공을 제일로 삼았으며, 박명현 이하의 차등을 두었다.

대개 공은 유학자로서 병법을 꺾고 군사를 거느림에 평소에 익힌 바는 아니었지만, 오직 그 임금이 욕되면 신하가 죽는다는 의리가 빛나고

빛나 한 마음에 밝았으며, 매번 살아있음을 욕되게 여겼다. 그러므로 큰 어려움에 임해서도 사람들이 모두 주저할 때, 홀로 상황을 살펴 계책을 결정하여 응전하니 신출귀몰하여 상황 중에 적이 꺼리고 거슬리는 것에 적중하여 그 기회를 꺾었다. 본성 또한 사람이 재주가 있는지, 지역한지, 사나운지, 겁이 많은지를 알아서 그 쓰임을 마땅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쓰임에 활용되는 바를 즐거함에 곧 능히 성공할 수 있었다. 적이 바야흐로 진격하여 압박할 때에 한현의 심복인 이익남이라는 자가 200여명을 선발하여 거느리고 몰래 아군처럼 해서 모퉁이로 성안에 들어와 적을 위하여 내응하고자 하였는데, 공이 일에 앞서 정황을 살펴 그 수족을 붙잡아 매어 간악함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니, 적이 계책을 잃고 간담이 깨뜨려진 것이 진실로 여기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니, 공은 싸우지 않고도 사람과 병사를 굴복시키는 사람이라고 할만하다.

오호라. 병신년으로부터 지금까지 40여년이 되었도다. 나라에 있는 여러 성의 견고함이 홍양보다 만전치 못하지 않으며, 지력 있는 신하와 맹렬한 장수가 서로 오르내리며 기세를 이루는 자들이 만전공의 위업을 아래로 내려다봄이 없지 않으나, 지난 병자호란을 돌이켜 봄에 한 성이나 한 장수도 성을 지켜 적에 대항함이 없었으니 어찌된 까닭인가. 온 나라에 병사를 모집함이 진실로 역적들의 오합지졸과 더불어 논할 수는 없으나, 진실로 지금의 장수된 자들로 하여금 의리에 죽는 마음을 품음이 모두 만전공이 한 것처럼 한다면 반드시 가히 불만한 것이 없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만전공으로 하여금 지금의 때를 당하게 한다면 비록 한 군사를 들어 13만의 강적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멀리 내다보는 재주가 불행하다고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멀리 내다보는 절개를 뒤로하지는 않을 것이니, 이것이 이후(李侯)가 급하게 만전공을 위하여 비석을 새기려고 하는 깊은 뜻이니 어찌 진실로 홍주 사람들만 경계할 뿐이겠는가.

지금 이후 홍주의 성을 지나가는 자가 봉강의 신하가 된 즉, 그 지킬 바를 생각하고 무사들은 그 몸을 버려 나라를 지킴을 생각하고, 선비와 새로 배우는 소생들은 그 난을 이겨내는 것을 헤아려 아는 것이 눈을 부릅뜨고 어려운가를 말함에 말미암지 않고, 시서(詩書)와 예악(禮樂)의 바탕에서 말미암는 것을 크게 깨달을 것이니, 일을 당함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비석에 있지 않은가. 만전공의 휘는 가신(可臣)이요, 자는 흥도(興道)이며, 남양인이다. 퇴계 이선생과 허초당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배움에 연원(淵源)이 있다. 선조 초에 지평과 장령으로 불렸으며, 일을 논함에 옛날의 간쟁하는 신하의 기풍이 있었고, 벼슬이 형조 판서에 이르렀으

나 공훈으로만 오직 한 것은 아니었다. 개성유수로 치사(致仕)하였다가 10년 뒤에 돌아갔다. 만전은 호이다.

명(銘)하여 가로대, “새매가 참새를 쫓을 때에는 부리의 큰 것에 그치지 아니함은 그 성품이 곧 강함이요, 인신(人臣)이 역적을 칠 때에는 강약에 관계없이 크고 강함을 밝힘에 있다. 빛나도다, 홍공이여. 영대(嬰帶)를 떼고서 저 미친 강적에 항거함에 의리로 몸을 이어서 그 처자식에게 미치고 군사의 창자를 격동시키도다. 굽은 자는 생각을 바꾸고 급한 자는 분발을 생각하여 모두 한결같이 마땅하기를 원하는데, 공은 이에 이로울 것을 헤아려 제장(諸將)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도모함이 깊었다. 너의 복을 어지러이 치고 밤에 말을 채찍질하여 너의 활을 걸어 당기니 불화살 고슴도치 피어나듯 함성은 위세를 더해주니 적들은 달아나고 망하였다. 명현을 먼저 놓고, 득의로 알아보니 난적의 우두머리 이빨처럼 뾰족하다. 괴수를 자루에 묶어놓은 듯 산채로 사로잡고, 달려가 주를 올리니 밝게 빛나도다. 역적의 기세 구름처럼 사라지고 산천이 안정하니 공의 공 높이 솟네. 이에 명하여 글을 내리시고 철권을 이으시며 맹부를 감추었다. 공의 죽음 오래되고 세상에 난이 그쳐 공의 충성 더욱 빛나도다. 홍주의 사람들이 그 덕을 생각하여 사당을 짓고 제사하니 월산의 남쪽이라. 소나무의 지도리에, 잣나무의 판에다가 신령을 모셔두고, 진(晉)의 제기 위에 붉은 여지요, 누른 파초로다. 오직 이에 양을 매어두니 나의 명(銘)이 큰 자취라. 먼 훗날 이것으로 보이리라.”

신사 12월 일 세우다.

나. 백월산 홍만전묘(洪晩全廟)

홍만전묘, 또는 홍주 정난사(靖難祠)라고 불리는 홍가신의 사당은 홍성읍의 진산으로 서쪽에 있는 백월산의 정상에 위치한다. 조선조 선조 때 일어났던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홍가신 목사의 은덕에 보답코자 세운 홍가신 사당에는 밤나무를 깎아 목상(木像)을



▲ 불타기 전의 사당 모습

만들어 안치하고 매년 정월 보름 안에 길일(吉日)을 택하여 제향을 올린다. 1618년(광해군 10)에 창건하고, 1886년(고종 23) 2월 15일에 중수하였다.

그 이후 1929년, 1974년에 각각 중수하고 2004년 12월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2006년 3월 15일 사당을 새로 건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당 안에는 오른쪽으로부터 일등 공신 홍가신 목사, 이등 공신 최호 수사, 이등 공신 박명현 우후(虞候), 삼등 공신 임득의 파총(把總), 삼등 공신 신경행 등 청난공신의 위패(位牌)가 있고, 가운데에 ‘백월산신지위(白月山神之位)’라는 산신 위패가 있다. 산신 위패 왼쪽에는 홍가신 일가로 보이는 목상(木像) 다섯 점이 있다. 목상은 남자상이 두 개, 여자상이 세 개이다. 중앙의 목상이 홍가신이고, 오른쪽은 아들과 막내딸이며 왼쪽은 부인과 큰 딸이라고 한다.

사당을 짓게 된 이유는 홍주목사 홍가신이 선정을 베풀고 홍주를 떠난 뒤 홍주골에 각종 질병이 해마다 끊이지 않아 이를 막고자 홍주의 진산인 백월산에 홍가신과 가족들의 상을 나무로 깎아 세우고 성안의 사람들이 해마다 제를 지냈던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신기하게도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 지금까지 제를 이어오고 있다. 제를 지낼 때에는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이곳은 홍가신의 기를 받으려는 무속인들이 정월 길일을 택해 제를 올리거나 개인적인 길일에 맞추어 제를 지내는 특별한 곳이기도 하다.

Ⅲ. 맺음말

홍주목은 육지와 바다가 어우러져 있고, 대부분 해발 50m 내외의 낮은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아울러 홍주목의 교통은 바다와 가까워 일찍부터 뱃길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홍주의 뱃길은 중앙과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왜구나 이양선의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역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은 옛 홍주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 중에서 본 글에서 필자는 이몽학의 난을 진압하여 임진왜란 시기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던 청난공신 홍가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의 대표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홍가신은 어려서부터 신통함을 보이더니 성균관에 나아가 공부할 때에도 말과 행동을 함에 한 치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이에 진사로서 강릉 참봉을 거쳐 예빈시 주부로 승진하였고, 곧바로 형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목민관이 되어 지방에 나갔을 때에는 제일로 백성을 사랑하고 고을을 다스림

에 청렴하였다. 여가시간이 생기면 늘 독서하면서 고을의 유생들은 물론이고 이웃 고을의 선비들과도 함께하며 학문을 신장시켰으며 충신으로서의 예를 갖추었다. 1594년(선조 27) 1월부터 홍주목사로 재직할 때에는 광해군(光海君)의 분조(分朝)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주변인들의 잘못된 행동도 슬기롭게 법과 예에 따라 처리하였다. 또한 왜란 때문에 한 치의 앞을 헤아리기 어려웠지만,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을 다음으로 두는 등 목민관으로서 솔선수범하였다.

특히 이몽학의 난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의 진가는 더욱 높아졌다. 이몽학이 홍산 현감 윤영현과 임천 군수 박진국을 사로잡고 청양과 정산 등 6개 고을을 함락시키면서 홍주목으로 들어올 때 다른 고을의 수령들과 아전들은 도망하기에 급급했지만, 홍가신은 무장(武將) 박명현과 임득의, 제찰사 종사관 신경행, 수사 최호 등과 함께 힘을 합해 홍주목을 지켰다. 나아가 이몽학을 제거하고 난을 평정한 그의 공은 왜란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였다. 이에 1602년(선조 35) 홍가신은 그 공으로 청난공신 1등에 오르고, 영원부원군에 봉해졌다.

홍가신의 공적은 그가 죽은 뒤에 더욱 빛났다. 아산의 인산서원과 온양의 정퇴서원의 유생들이 홍가신을 배향하면서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고, 홍주 사람들은 ‘홍양청난비’를 세워 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더욱 특별한 것은 홍주목의 진산인 백월산의 정상에 홍가신의 사당을 짓고 목상까지 깎아 그의 은덕에 보답하는 제향을 올린 것인데, 그 행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의 기를 받으려는 무속인들의 행사도 끊이지 않고 있음은 홍가신 목사가 홍주에 남긴 정말 특별한 인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홍동면 팔괘리 김성오씨 가옥

한중구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마을의 인문환경 및 조사가옥의 조영배경

1.1 홍동면의 역사적 배경

홍동면은 삼한시대에는 마한의 감계비이국으로 통일신라시대에서는 려양현으로 고려시대에는 홍주목의 결성군 홍양현으로 조선시대에는 홍주목 변천면으로 불리다가 1914년 당시 구홍주군의 금동면, 홍안송면, 변천면, 송지곡면 등을 합하여 홍동면으로 개칭하고 18개 리와 41개 마을로 구성되었



▲ 그림 1-1 홍동면의 위치

다가 1983년 운용, 대평, 월림리는 광천읍으로 구룡리는 홍성읍으로 편입되었다. 홍동이란 지명은 홍성의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홍동이라고 불린다.¹⁾

1.2 팔괘리의 역사적 배경

팔괘리는 조선시대 말엽에는 홍주군 홍안송면의 지역으로서 뒷산에 매작바위와 두엄바위가 있으므로 바쿠, 돌팍미 또는 팔괘, 석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상팔리, 신흥리, 하팔리, 송정리 일부와 송지곡면의 동구리 일부를 병합하여 팔괘리라 해서 홍동면에 편입되었다.²⁾



▲ 그림 1-2 팔괘리 마을입구

1), 2) <홍동면지 제2편 홍동면의 역사>, 1994년 발간, p.131~p.171

1.3 조사가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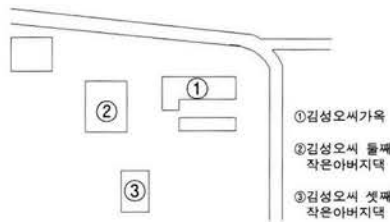
1.3.1 가옥 및 가족의 내력

김성오씨 가옥을 답사하였을 당시(2006년 9월)에는 김성오씨는 고인이 된 후였고, 김성오씨의 자제들은 모두 고향을 떠난 후였다. 아래의 글은 김성오씨 가옥 인근에 살고 계신 김성오씨의 숙모인 한경옥 할머니(103세)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본 가옥은 조선 송정 15년인 1642년에 신평 이씨 가문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현 소유주인 김성오씨 집안은 증조부 때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1.3.2 경제생활 및 의식주생활

김성오씨의 증조부가 이곳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집 주위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대대로 양반 집안이여서 많은 하인이 있었다고 하나 김성오씨 아버지 대에 와서는 3형제가 같이 기거하였기 때문에 하인이 같이 살지는 않고 일손이 필요할 때만 사람을 썼다고



▲ 그림 1-3 김성오씨 가옥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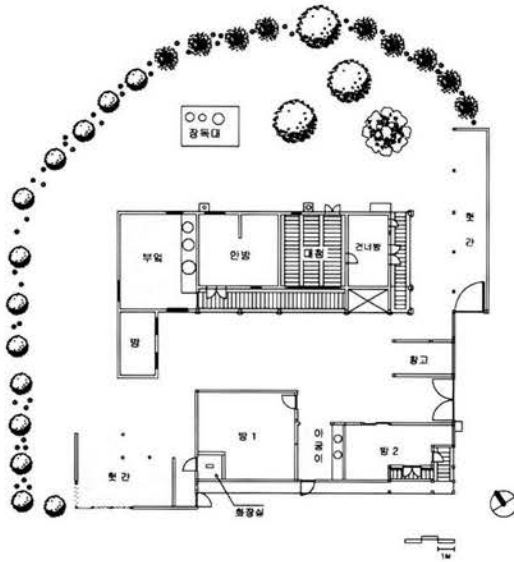
한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에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창고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형태가 남아있지 않다.³⁾ 현재는 셋 채의 집으로 나누어진 집이 처음에는 하나의 큰 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건물 내·외부 구성

2.1 내부구성

본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양쪽 모두 현대식으로 개보수 되었다.

3) 한경옥 할머니의 말 인용(2006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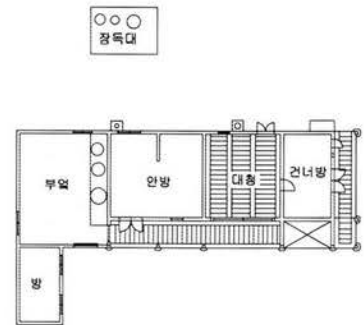
▲ 그림 2-1 가옥의 배치도

2.1.1 안채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것은 전통가옥의 공간의 구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채라 함은 안주인이 기거하던 곳이다.

김성오씨 가옥의 안채 구성은 왼쪽부터 방, 부엌, 안방, 대청,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과 대청 앞에는 퇴를 두었고 건넌방 앞으로는 쪽마루를 두었다.

난방 방식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널리 사용된 구들을 사용한 방식으로 부엌의 아궁이에서 안방을 난방하고 건넌방은 앞쪽의 함실아궁이가 담당하고 있다.



▲ 그림 2-2 안채 평면

1) 안방

부엌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방으로 2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 중앙에 미서기 장지문으로 방을 2개로 나누거나 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부엌과 대청 방향으로 문이 있다. 방안에는 현재의 다락방과 같은 반

자와 여러 곳의 수납공간이 있어 방 안 곳곳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그림 2-3 안방의 내부 벽면



▲ 그림 2-4 안방 내부



▲ 그림 2-5 안방의 창문



▲ 그림 2-6 안방 문

2) 대청

우리 전통건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북방의 패쇄적인 온돌이 있다면 남방의 개방적인 마루가 있다.

조선중기 때까지는 온돌과 마루 중 온돌은 일반서민들만이 사용하는 가옥의 양식이었고 상류층들은 중국의 입식 문화인 부분적인 온돌방식만 사용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온돌과 마루가 널리 사용되면서 보편화된 것이다. 마루는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중부지방에서는 주로 '대청'



▲ 그림 2-7 대청과 앞 유리문



▲ 그림 2-8 대청 뒷문

이라 부르고 남부 호남지방에서는 대청과 별도로 ‘마래’가 설치되었으며, 동부 영남지방에서는 ‘안청’으로, 북부 영남지방이나 강원도에선 ‘안마루’로 불렸다.

대청은 주로 방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서 마당을 향해 개방되어 설치됐다. 마루의 발생은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구조에 맞게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고 또 곡물의 수장을 위한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닌 채 전이 공간, 수장 공간으로 지금껏 그 맥을 이어왔다. 현대의 거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전통가옥의 마루인 것이다.

김성오씨의 가옥의 대청에서도 살펴보면 현재는 보수가 되어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지만 초기에는 건넌방과 안방의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이곳에서 집안의 대소사를 치렀다고 한다.

3) 건넌방

대청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건넌방은 일반적으로 며느리의 취침공간인 동시에 일상 거처공간이다. 건넌방은 안방의 반 정도의 크기이며 전면에 함실아궁이가 있는 반자를 가지고 있다. 대청 반대방향으로 문과 창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 그림 2-9 함실아궁이



▲ 그림 2-10 건넌방 배면



▲ 그림 2-11 건넌방 동측 문

4) 부엌

안방을 중심으로 대청 반대편으로는 부엌이 배치되어 있다. 부엌은 2칸의 크기로 되어있다. 부엌의 문은 근대에 와서 교체된 것으로 보이며 본래에는 1칸 짜리 나무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엌의 안쪽에는 취사와 안방의 난방을 담당하는 아궁이가 있고 부엌은 마당의 바닥 높이와 같게 바닥이 형성되어 있다. 부엌의 천장위로는 다락이 있다.

한옥의 부엌은 기단보다 바닥이 낮고 전면의 마당과 후면의 장독대로 통할 수 있는 양쪽의 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림 2-13과 같이 퇴를 사용하여 출입할

수 있는 나무 쪽문이 있고, 안방 내부에서 부엌의 아궁이 위로 통하는 쪽문이 있어 생활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그림 2-12 부엌문



▲ 그림 2-13 부엌 외부



▲ 그림 2-14 부엌 내부

5) 작은방

김성오씨 가옥에는 부엌 앞쪽으로 작은 방이 한 칸 더 배치되어 있다. 이 방은 주로 베를 짜거나 하는 작업실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내부를 살펴보면 현재에는 옛날에 사용하였던 재봉틀과 재사물품, 농기구들이 보관되어 있다.



▲ 그림 2-15 작은방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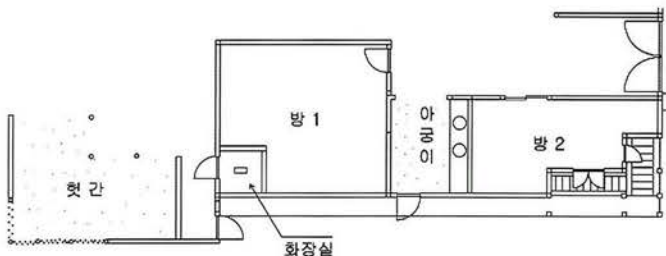


▲ 그림 2-16 작은방 정면

2.1.2 사랑채

1) 사랑방

사랑방은 남성들만이 쓰는 공간으로, 그 집안 남자 어른(가부장)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주인은 손님을 맞고 공부도 하는 곳으로 여자들이 거처하는 안방이나 건넌방과 구별된다.



▲ 그림 2-17 사랑채 평면

양반들의 사랑방은 안채와 떨어진 별채에 두었지만 서민층에서는 안방이 아닌 곳을 택하여 사랑으로 썼다. 사랑채는 대개 사랑방, 침방, 대청 그리고 누마루로 구성되는데 성년이 된 장손이 있는 집에서는 사랑채에 온돌방을 하나 더 마련하여 작은 사랑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김성오씨 가옥의 사랑채의 구성을 보면 대문 바로 앞에 사랑방이 있다. 사랑방에는 외부로 뒗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쪽으로도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데 마루 아래에 아궁이가 있어 사랑방의 난방을 담당하고 있다. 마루 아래의 아궁이 구들은 사랑방을 지나 대문 왼쪽의 굴뚝으로 통한다. 조사당시 생활의 편리를 위해 다른 집들이 그렇듯이 외부로 비닐을 치고 있었다.



▲ 그림 2-18 사랑채 외부 마루



▲ 그림 2-19 사랑채 마루



▲ 그림 2-20 사랑채의 아궁이



▲ 그림 2-21 사랑채 문



▲ 그림 2-22 사랑채 내부 공간



▲ 그림 2-23 사랑채 외부모습

2) 헛간과 재래식 화장실

농가에서 헛간은 흔히 농기구 같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쌓아두던 곳으로 김성오씨 가옥에서는 작은 사랑 옆쪽과 안채와 토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에 작은 사랑 옆에 위치한 헛간은 4칸으로 되어 있으며 헛간과 화장실을 사이에 두고 외부의 밭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다. 헛간에 농기구와 같은 물건을 쌓아두고 밭일을 하러 나갈 때 이 문을 이용한 것이다. 화장실은 1.5m×1.5m의 크기로 내부의 가운데 번기가 1개 설치되어 있고 쪽문을 나서면 오른쪽에 지금의 정화조와 같은 독이 땅속에 묻혀있다.



▲ 그림 2-24 헛간의 외부



▲ 그림 2-25 헛간



▲ 그림 2-26 화장실 문



▲ 그림 2-27 쪽문

2.2 외부구성

2.2.1 대문

한옥에서의 대문은 집의 정면에 있어서 집을 대표하는 문이다. 김성오씨 가옥의 대문은 4자(125cm)의 나무판이 2짝 있는 적색 판문으로 사랑채 바로 옆에 걸려있어 외부에서 내부의 마당으로 통하는 형식상의 경계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문의 오른쪽으로는 토담을 따라 헛간이 있으며 헛간에서 외부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다. 이 문은 헛간의 농기구를 쉽게 출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 그림 2-28 대문

2.2.2 장독대

장독대는 안채 부엌 뒷문으로부터 4m 떨어진 곳에 높이 1자(30cm) 가량의 콘크리트 기단 위에 가로 3.5m, 세로 2.4m의 넓이로 만들어져있다. 기단의 재

료가 반듯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래에 들어 다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금도 십여 개의 크고 작은 장독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 그림 2-29 장독대

2.2.3 뒷마당

건물의 뒷면에는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이 있다. 이곳은 뒤쪽으로 낮은 언덕이 형성되어 있으며 3그루의 밤나무와 1그루의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다. 현재 뒷마당에 심어져 있는 작은 나무들이 크게 자라나 자연스럽게 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2.2.4 담장

김성오씨 가옥의 담장은 전면에는 토담을 쌓았고 건물 뒤쪽으로는 작은 언덕 위에 나무를 심음으로서 자연스러운 울타리를 형성하여 담장을 대신하였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공간에 대문이 걸려있고 담장을 따라 내부로 약 1.2m 정도의 지붕을 올려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헛간을 만들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 그림 2-30 뒷마당 언덕



▲ 그림 2-31 생울



▲ 그림 2-32 토담



▲ 그림 2-33 토담의 헛간



▲ 그림 2-34 대문 옆 쪽문

3. 일반구조, 입면의장 및 환경설비

3.1 일반구조

3.1.1 기단(基壇)

기단이란 우천시에 빗물이 튀는 것과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습기를 피하고 동시에 건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건물 밑 부분에 돌을 쌓거나 다른 자재를 써서 쌓아 올린 단인데, 돌로만 쌓기도 하며 기와와 벽돌을 또는 돌과 벽돌을 섞어 쌓기도 한다.



▲ 그림 3-1 자연석 2별대 기단



▲ 그림 3-2 계단

김성오씨 가옥은 자연석을 가져다 두 단으로 쌓은 2별대 기단으로 현재는 돌 사이를 흙 대신 시멘트로 보강해 기단을 쌓았으며 기단 두 곳에 계단을 만들어 놓았다. 기단 높이는 50cm이다.

3.1.2 초석(礎石)

초석은 주초 혹은 주초석이라고도 불리는데, 기둥을 통해 전달된 상부의 하중을 기초에 거쳐 지반으로 전달해주며 지면의 습기로부터 기둥뿌리를 보호해주는 부재이다.



▲ 그림 3-3 초석



▲ 그림 3-4 초석

김성오씨 가옥 초석은 자연석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막돌 초석으로 기둥과 접하는 면이 고르지 않아 기둥의 안정을 위해 그랭이질을 하여 접속하였다. 그리고 나중에 기둥에 나무를 덧대어 보강한 흔적이 있다.(그림 3-3) 초석의 크기는 $40\text{cm} \times 30\text{cm} \times 20\text{cm}$ 이며(그림 3-4) 초석의 크기는 $30\text{cm} \times 70\text{cm} \times 20\text{cm}$ (W×L×H)이다.

3.1.3 바닥

안방과 건넌방은 온돌구조로 되어있으며, 마루는 기둥과 기둥사이에 장귀틀을 끼우고 장귀틀과 괴중방에 동귀틀을 끼운 후 동귀틀 사이에 마루 널을 쪽매로 끼운 우물마루를 사용하고 있다.

3.1.4 기둥

김성오씨 가옥의 기둥은 대부분 각기둥을 사용하였으며 건물의 가운데 기둥은 휘어진 나무를 제재하지 않고 휘어진 그대로 사용하였다.



▲ 그림 3-5 전퇴



▲ 그림 3-6 대청마루



▲ 그림 3-7 안채의 흰 기둥



▲ 그림 3-8 안채 기둥

3.1.5 지붕가구

전통가옥의 가구 형식은 3량을 기본으로 하며, 가구 크기에 따라 5량, 7량, 11량 등 다양하다. 김성오씨 가옥은 5량의 지붕가구로 되어있다.



▲ 그림 3-9 지붕 모서리 서까래



▲ 그림 3-10 내부 가구구성

3.1.6 천장과 처마

김성오씨 가옥 대청마루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고 산자널에 치받이 흙을 발라 회반죽으로 마감한 연등천장으로 되어있다.(그림 3-12)



▲ 그림 3-11 처마



▲ 그림 3-12 대청의 연등천장

3.1.7 지붕

김성오씨 가옥은 5량 지붕구조에 팔작지붕구조이며 안채는 원래 초가지붕이었으나 70년대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현재의 암 기와로 이루어진 기와지붕 모습을 띄고 있다.⁴⁾

4) 김성오씨 사위와 2006.09.18 인터뷰로 확인한 내용



▲ 그림 3-13 안채 좌측 합각부분



▲ 그림 3-14 대문 밖에서 본 사랑채지붕



▲ 그림 3-15 후원에서 본 지붕



▲ 그림 3-16 안채 앞 우측지붕

3.1.8 툇보

김성오씨 가옥의 툇보는 곧은 형태의 나무를 사용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약간 휘어진 모양의 나무를 사용하여 툇보를 형성하고 있다. 반듯한 나무를 사용하여 만든 것보다 공간이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편한 느낌을 준다. 힘을 받는 역량도 굽은 보가 반듯한 보가 더 크다는 것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공학적으로도 과학적인 부재 사용이라 할 수 있다.



▲ 그림 3-17 대청 툇보



▲ 그림 3-18 건넌방 툇보

3.2 입면의장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되어있으며 지붕과 개구부의 비율은 1:1.2정도로 지붕보다 개구부의 비중이 크다. 개구부의 구성은 상인방, 하인방, 머름, 기둥, 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초는 다듬질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각각 상이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높이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기둥을 세울 당시 그랭이질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그림 3-19 입면

3.3 환경설비

3.3.1 부뚜막

부뚜막은 솔을 걸고 밑에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사와 난방의 이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부엌 내부와 건물의 밑 부분에 있는 부뚜막과 건물 외부에 노출되어있는 한데 부뚜막으로 나눌 수 있다.



▲ 그림 3-20 부뚜막

김성오씨 가옥은 부뚜막에 아궁이가 3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있고 큰 솔 하나와 작은 솔 두개를 걸 수 있게 되어있다.(그림 3-20)

3.3.2 굴뚝

김성오씨 가옥의 굴뚝은 3개이며(그림 3-21) 그중 첫 번째 굴뚝은 건넌방 함실아궁이와 연결되어 있으며 세 번째 굴뚝은 난방용 아궁이가 아닌 취사용으로

사용한 듯 따로 굴뚝이 설치되어 있다.(그림 3-24)



▲ 그림 3-21 굴뚝



▲ 그림 3-22 함실아궁이



▲ 그림 3-23 두 번째 굴뚝



▲ 그림 3-24 세번째 굴뚝

3.3.3 장독대

김성오씨 가옥의 장독대는 뒤뜰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사각형의 기단형태이다. 장독은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하지 않고 뒤집어진 채 세워져 있다.



▲ 그림 3-25 장독대

4. 가옥의 풍수지리적 해석

충청도는 높고 가파른 산들이 다른 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 대구 팔공산이나 영암의 월출산을 둘러볼 때 다가오는 위압감이나 야성적인 느낌을 주는 산들이 충청도에겐 거의 없다. 돌산보다는 흙으로 이루어진 야트막한 야산들이 주를 이룬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에 위치한 석산마을도 주변의 산세가 솜이불을 덮어놓은 것 마냥 대부분이 100m내외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청도의 산세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 야트막한 둔덕 같은 산들은 보는 사람

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한다.

마을의 입구부분에 석산마을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고 그 비석 앞 길모퉁이부분에 김성오씨 가옥이 위치하였다.

김성오씨 가옥은 70m되는 뒷산 아래에 바로 인접하여 자리를 잡고 있으며 숨이불같이 포근한 기운을 풍기는 야트막한 둔덕들이 둘러싸고 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포근한 기운뿐 송곳처럼 날카로운 곳은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다.

4.1 김성오씨 가옥의 입지 환경

풀과 나무들이 녹색을 띤 경우 그곳의 기는 건강하고 상서롭다고 할 수 있고 나무들의 번성함에 풍부한 기의 존재를 대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나무의 존재만으로도 근처의 기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생기 넘치는 녹색 잎을 가진 나무들은 기에 자양을 공급한다.⁵⁾

김성오씨 가옥 앞에는 잘 일궈진 텃밭도 있고 가옥 담장에는 호박덩굴과 담쟁이덩굴로 감싸고 있으며 가옥의 입구부분에는 코스모스가 하늘거리며 반기고 있다. 가옥 주변에는 소나무·밤나무 등을 비롯해 각종 웅장한 나무들이 가옥 주위를 지키고 있어 생명력 넘치는 기가 풍부한 곳으로 보인다.

김성오씨 가옥 뒤편으로는 주산을 등지고 있으며 주산의 맥이 곡선을 이루고 부드럽고 완만하게 집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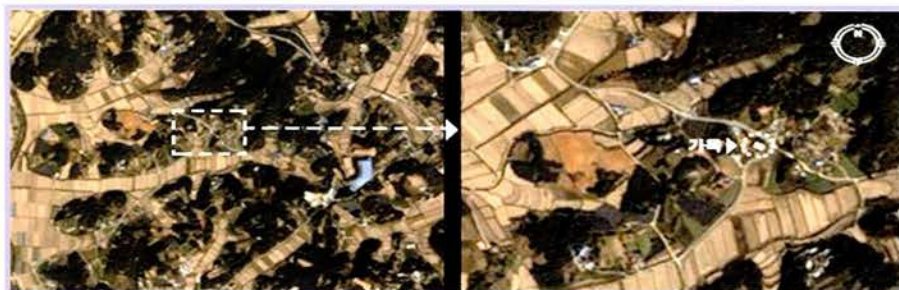
4.2 김성오씨 가옥의 풍수적 해석

4.2.1 형국론적 해석

집이나 점포 같은 건물을 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이 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도록 배치해야 한다. 자연의 기운을 많이 받아들이면 건물 안에 좋은 기운이 쌓여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해지고 사업이 발전한다. 그러나 건물 배치를 잘못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곳에 사는 사람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심지어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고 여겨진다.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은 각 지세를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남향이나 배산임수 등 방위를 고려해야 하며, 도로·마당·주변건물·내륙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야 한다.

5) 《풍수로 보는 인테리어》 사라 로스비크, 황봉득 번역, 동도원, 2006, p.183



▲ 그림 4-1 위성사진으로 본 주변 형국도



▲ 그림 4-2 지형도로 본 주변 모습

김성오씨 가옥의 좌청룡과 우백호는 어머니의 품처럼 서로 감싸고 있으며 가옥에서 1km정도 떨어진 곳에 안산(案山)이 위치하고 있다. 이는 마치 누에가 가로로 길게 누워있는 듯한 낮은 산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룡자락과 백호자락을 둘러보아도 높은 산이 없다. 낮은 산이라 할지라도 산은 평탄한 땅보다 더욱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세를 분석하고 집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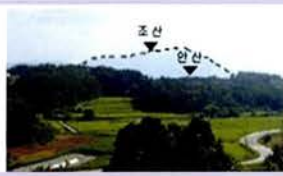
▲ 그림 4-3 김성오씨 가옥 주변 용호와 수세

안산(案山)은 주산(主山)과 비교해 볼 때 낮아서 주산(主山)에 공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안산너머로는 가옥에서 9km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오서산의 조산이 있다. 주변의 산세가 매우 낮아 저 멀리에 있는 오서산의 자락이 희미하지만 눈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집 뒤의 내룡(來龍)을 보아도 해발 100m도 안 되는 야산이라서 위압감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다. 한마디로 김성오씨 가옥 주변 산세의 특징은 살기(殺氣)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 그림 4-4 좌청룡



▲ 그림 4-5 안산·조산



▲ 그림 4-6 우백호

4.2.2 가상적 해석

김성오씨 가옥은 간좌곤향(艮坐坤向)으로 동북쪽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가상(家相)의 3대 요소로는 배산임수(背山臨水)·전저후고(前低後高)·전착후관(前窄後寬)이 있다.

김성오씨 가옥은 가상(家相)의 3대 요소 중 배산임수(背山臨水)와 전저후고(前低後高)의 특성을 띠고 있다.

배산임수(背山臨水)는 산을 등지고 물이 있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건강과 장수를 가져오는 좋은 곳이라 하였다. 그 옛날 우리의 조상님들은 자연지형이 잘 형성된 곳을 택하여 생활함으로써 산에서 땀감을 손쉽게 구하고 집 앞으로 흐르는 물을 생활용수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농경 생활에 있어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필수조건이었던 것이다. 즉 이와 같이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적합한 장소로 선택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소는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온습도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한국 전통 건축법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전저후고(前低後高)는 주 건물은 높이 위치하고 정원과 부속건물은 주 건물에 비해 낮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세와 영웅이 탄생한다고 보고 있다. 도로보다 높은 곳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말하며, 경사가 급한 곳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지에 집을 지을 때에도 주택은 정원이나 길보다 2~3계단 정도 높게 해야만 배수가 잘되고 습하지 않으며 채광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⁶⁾

김성오씨 가옥은 70m정도의 낮은 야산을 등지고 있으며, 산세에서부



▲ 그림 4-7 물줄기의 형태

6) <대운 풍수지리 연구소>, <http://cafe.naver.com/pung114.cafe>

터 흘러내려온 물줄기가 작지만 길을 따라 흐르고 있고, 그 물줄기가 흐르는 쪽을 향해 건물을 배치하였다. 또한 산의 맥이 곡선을 이루고 부드럽고 완만하게 집까지 흘러들어가고 있다.

풍수에서 도로는 기운, 곧 바람이 통과하는 길을 뜻한다. 도로의 위치나 크기 등은 건물 배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된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는 바람도 잔잔하다. 그러나 자동차 왕래가 많은 도로에서는 자동차 속도와 함께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 바람이 도로를 통해 집에 전달되면 집 내부의 기운이 변한다. 따라서 집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정도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이 달라진다. 도로에 면하고 있는 집들은 도로를 통해 바람을 맞는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잔잔한 도로 쪽이 명당에 가깝다. 빠르게 부는 바람은 생기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생기를 빼앗아가는 역할을 한다.⁷⁾

김성오씨 가옥은 두면의 도로와 접해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건물 앞에 작은 텃밭이 있어 조금 떨어져 있고, 접하는 다른 면은 큰 나무가 심어져있어 바람을 막아준다. 또한 좁은 도로이면서 곡선 도로이어서 자동차의 속도가 느려서 바람도 천천히 불어 분위기는 좋아진다. 하지만 이 도로는 완만하게 흘러들어오는 산의 맥을 가로질러있다. 산의 맥을 약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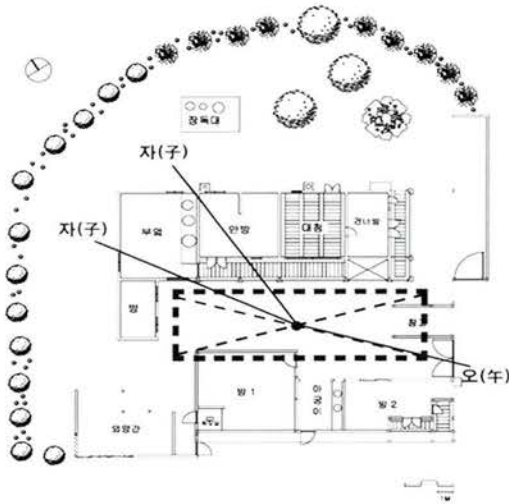
▲ 그림 4-8 도로의 형태

4.2.3 이기론적 해석

집의 중심에서 패철을 놓고 방위를 살펴보았다. 방위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동사택과 서사택, 음양·오행 세 가지를 보았다. 대문과 안방 그리고 부엌을 양택의 세 가지 주요소라고 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배치되었을 때 좋은 집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오씨 가옥을 양택삼요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 안채의 안방과 부엌은 자

7) 《풍수로 보는 인테리어》, 사라 로스바크, 황봉득 번역, 동도원, 2006, p.169



▲ 4-9 가옥의 좌향 및 삼요

방향(북쪽)이고 대문은 午방향(남쪽)에 위치하는 동사택이라 할 수 있다.

오(午)는 팔괘(八卦)로 리(離)괘에 해당되고 자(子)는 감(坎)괘에 해당되므로 리문감주(離門坎主)에 해당되는 양택삼요(陽宅三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리문감주(離門坎主) 음양이 정배되어 부귀의 판이다. 이름 하여 연년의 안방으로 부부 정배이고 수화기제의 집이다. 복록수(福祿壽)가 완전히 갖추어졌고, 자식은 효도하고 소자는 어질며, 충의현량하고 아들 넷을 낳으며, 아이들이 집안에 가득하나, 단 해가 오래되면 처를 극하고 심장과 배에 동통이 있으며 질병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진손(震巽)의 부역을 갖추면 해흥(解凶)되며, 모두가 길하다.

陰陽正配富貴局 名延年 主夫婦正配 水火既濟之宅 復祿壽齊全 子孝孫賢 忠義賢良 生四子
음양정배부귀국 명연년 주부부정배 수화기제지택 복록수제전 자효손현 충의현량 생사자
兒孩滿堂 但年久犯剋妻 心腹疼痛 目多疾病 安震巽灶解之 全吉
아해만당 단년구범극처 심복동통 목다질병 안진손조해지 전길

감(坎)의 부역은 대문과는 정배이고, 안방과는 비화로 대길하며, 수(水)가 승(勝)하고 화(火)가 약하여 부녀자가 요절한다.

坎灶與門正配 與主比和 大吉 水勝火弱 婦女夭亡
감조여문정배 여주비화 대길 수승화약 부녀요망

안채의 좌향을 음양의 조화와 오행의 상생 관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성/분류	위 치	동서사택	음 양	오 행
안방·부엌	자(子)	동사택	양	수(水)
대문	오(午)	동사택	음	화(火)
평가		길(吉)	조화	상극

▲ 표 4-1 김성오씨 가옥의 풍수적 해석

결론적으로 김성오씨 가옥은 동서사택으로 볼 때에 동사택의 같은 기운으로 길하며, 음양도 조화롭다. 하지만 오행의 관계에 있어서 물은 타오르는 불을 꺼버릴 수 있기에 서로 상극이다. 상극은 서로 견제한다는 것으로 일방적인 길의 관계보다 적절한 견제를 통해 긴장을 줌으로서 균형을 유지하거나 발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4.3 풍수의 종합고찰

김성오씨 가옥은 부드러운 주산 아래에 자리 잡은 저택이다. 산세의 특징은 매우 부드러우며 송곳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느낌의 살기(殺氣)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사신사인 청룡과 백호가 어머니의 품처럼 서로 감싸 안아 장풍이 잘되는 장풍국 명당이다.

집의 가상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양택삼요에 따른 이기론적인 측면에서도 길하며 음양도 조화롭지만 오행의 관계만 다소 좋지 않다. 그러나 오행은 다소 불리하지만 전반적으로 형국과 이기론적 측면에서 좋으므로 길한 집이라 평가할 수 있다.♥

홍성에서의 만해 한용운 2

한건택 | 청운대학교 외래교수

한용운이 살았던 남문동은 어디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한유천의 행적은 7살 경에 부친인 한응준을 따라 홍성 남문동으로 나와 살았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14살인 1893년경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학계리에 사는 전정숙과 결혼을 하였다. 이후 한유천은 1904년 전정숙이 아들 보국을 회임중일 때 홀연 출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한응준과 한유천이 살았던 홍주 남문동의 집은 어디일까?¹⁾

우선 홍주 남문동이 어디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홍주 남문동은 현재의 오관리의 일부를 남문동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 방리조에 보면 남관리(南官里)는 읍성의 남쪽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홍주성의 남쪽은 남문동으로 불리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 474번지 토지대장

1) 전편에서는 한응준과 한유천 그리고 한보국이 살던 집을 같은 집으로 보았으나 조사 결과 다른 집으로 보여 다시 조사 정리한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성내리, 북사리, 북촌리, 서문리, 옥동, 남관리 및 송정리의 일부를 합하여 오관리로 부르게 되었다. 현재 오관리 중에서 과거 남관리 즉 홍주성 남쪽의 1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남문동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은 오관리 3리, 4리, 5리로 추정된다. 이중 오관리 4리는 옥동이라 불렸다고 하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오관리 3리, 4리, 5리를 남문동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응준과 한유천이 살았던 남문동 집은 어디일까? 우선 한유천의 아들 한보국을 중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한보국이 살던 집은 현재 담배인삼공사(KT&G) 홍성점 옆 권룡타운 맞은편인 오관리 474번지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전편에서 한보국이 살던 집을 한응준과 한유천이 살았던 집으로 추정해 보았었다.

하지만 다시 토지대장을 조사해본 결과 오관리 474번지는 한보국이 해방되기 1년 전인 소화 19년(1944년) 8월 9일 박창국으로 부터 구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한보국의 이름은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송도보국으로 기록되어 있다.²⁾ 그리고 한보국이 구입할 때의 주소는 오관리 206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등기부 등본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면 한유천이 살던 집 그리고 한보국이 태어난 집은 어디일까?

한보국의 호적 기록을 통한 한응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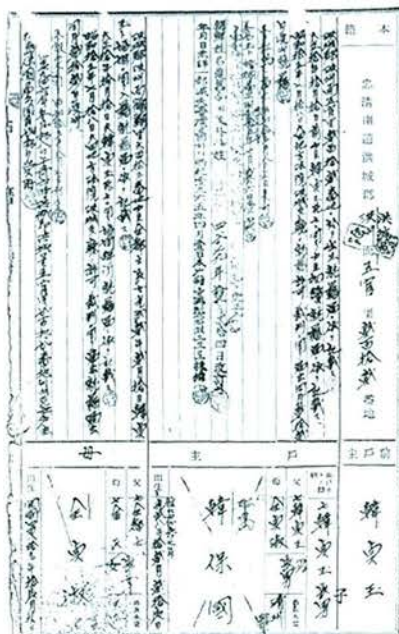
우선 한보국의 제적등본을 살펴보자. 한보국의 제적등본에 부친은 한정옥으로 되어있다. 한보국은 장남으로 기록되어 있고 대정 10년(1921년) 10월 10일 호주 한정옥의 사망으로 호주를 승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한유천(한정옥)의 부인인 전정숙은 전도사(全都士)의 딸로 1880년 12월 10일생으로 학계리

2) 이용재, 『황민화 정책을 통해 본 창씨개명』,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부임 후 일제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내세우며 시행한 한국인의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1939년 11월 10일 제령(制令) 제19호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중 개정의 건'을 시작으로 제령(制令) 제20호 '조선인 인명에 관한 건'과 조선총독부령 제220호, 제221호, 제222호 그리고 조선총독부 훈령 제76호, 제76호 등을 발표하여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훈령의 내용 중, 창씨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창씨를 하지 않는 조선인의 명찰이 붙어 있는 하물은 철도국이나 구성운송점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철물점을 운영하던 한보국은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과 자녀의 출생은 호적을 취득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으로 보인다.



▲ 한보국의 제적등본

615번지에서 출생, 1897년(광무 1년) 2월 10일 한정옥과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보면 한유천이 14살인 1893년경 부모님의 뜻에 따라 학계리에 사는 전정숙과 결혼을 하였다는 기록 또한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록은 한보국이 1940년 7월 18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의 허가에 의하여 취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한보국이 자신의 부인인 강창옥과 결혼을 하여 호적을 취득해야 해서 임의로 만들어 올린 기록인지는 모른다.³⁾

일단 이 기록대로 하면 한유천(한정옥)은 한응준이 1895년 3월 25일 사망한

이후에 결혼한 것이다. 한유천은 홀어머니와 함께 성장하여 18세에 학계리에 사는 17세의 전정숙과 1897년 2월 10일 결혼⁴⁾을 한 것이다. 그리고 전정숙은 1946년 3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한보국이 신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적등본을 보면 한보국의 주소는 오관리 212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전정숙이 사망한 주소도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한보국도 자신의 출생지를 오관리 212번지로 기록하고 있다. 결국 한용운의 남문동 집은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⁵⁾인 것이다.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는 현재 홍주성 동쪽 제일문구 옆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홍성읍 오관리 3리이다. 오관리 3리는 농협 오관지소 부근에서 축협사이와 매일시장 일대를 포함하고 있어 과거의 남문동 지역에 해당된다.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

기록상으로 한유천(한정옥)은 18세에 학계리에 사는 17세의 전정숙과 1897년

3) 김광식, 『만해 한용운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337~372.

김광식, 『한용운의 아들, 한보국의 삶』, 『만해 학보』10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0, p.65~100.

4) 이 기록대로 한다면 만해 한용운의 1차 출가 시기도 다시 정리를 해야 한다.

5) 토지대장에 기록된 오관리 212번지의 소유권은 1913년 이종석이 소유하고 1916년 이기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리고 뒤에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토지대장과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은 일제하 토지조사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계속 이사를 하지 않고 전정숙이 212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한유천이 살았던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



▲ 한보국이 친구들과 찍은 사진
(뒷줄 왼쪽이 한보국)



▲ 1930년 1월 20일자
중외일보 홍성지국 기자의 한보국

2월 10일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한윤경과 한보국의 제적등본 어디에도 어머니가 온양방씨로만 기록되어 있고 사망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⁶⁾ 한유천이 결혼할 당시에 온양방씨는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유천은 그간 알려진 대로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혼 후 7년 만에 회임을 하였고 한유천은 회임 중에 출가를 하여 스님이 되어

법명을 용운으로 바꾸었다. 홀로 남겨진 전정숙은 1904년 12월 21일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이 한보국이다.

한보국은 어린 시절 모친인 정정숙과 함께 성장하여 홍성공립 보통학교 17회로 1927년 졸업⁷⁾하였다고 한다. 한보국이 홍성지역에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한 것은 신간회 홍성지회에서이다. 이에 앞서 한윤운은 1927년 6월 10일 신간회 경성지회가 창립되었고 경성지회장에 추대되었다. 이후 2달 뒤 1927년 8월 25일 신간회 충청남도 홍성지회가 창립된다.

신간회가 설립될 당시 사무보조와 간사로 활동하였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확인할 길은 없다. 신간회 홍성지회는 1929년 7월 30일 임시대회를 열어 조직을 개편한다. 이때 집행위원에 한보국의 이름이 올라있고 상무집행위원에도 한보국의 이름이 올라있다.⁸⁾ 이후 신간회는 1931년 신간회 해소문제로 전국대회가 소집되자 홍성지회는 5월 9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신간회 해소 반대를 결의하나 이후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한보국이 1930년 서울에 올라가 중등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하나 이를 확인할 구체적인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보국은 1930년 초반 중외일보 기자로 홍성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⁹⁾ 이후 한

6) 추후 한윤운의 어머니 온양방씨에 대한 기록은 족보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7) 김광식, 『만해 한윤운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p.346~348.
이 기록에 대하여는 지역에서 다시 한 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8) 《조선일보》 1929년 08월 04일자 참조.

9) 《중외일보》 1930년 01월 20일자 참조. 중외일보 사고에 김재수와 함께 중외일보 홍성지국 기자로 이름을 올린다.

보국의 행적은 1930년 9월 22일 중앙청년동맹에 가입한다.¹⁰⁾ 중앙청년동맹의 가입은 홍성에서 활동하며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에 올라가 활동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한보국은 사회주의자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¹¹⁾

한보국은 1930년 7월경 체포된다. 치안유지법위반으로 구속된 한보국은 180일의 구류를 거쳐 통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 이 당시의 상황이 삼천리호에 실렸다.

아버지는 민족주의자요 아들은 사회주의자인 분에 許憲씨와 그의 따님 許貞淑씨가 있고 洪命憲씨에 그의 아드님 洪起文씨가 있고 그리고 또 韓龍雲씨에 그의 아드님 韓保國이 있다. 韓保國은 XX黨 再建委員會 사건으로 지금 西大門 형무소에 가치어 있는데 公判이 迫到하였기에 누가 韓龍雲씨 더러 辯護士를 대일 것을 권하였더니 韓씨 『制令違反이나 치안유지법 위반은 판에 박어노는 듯한 판결이나 내리는 법인데 변호사는 무슨 변호사요?』 하고 泰然 거절하였다. 韓씨의 면목이 躍如타 할가.¹²⁾

한용운이 아들 한보국을 대하는 태도의 단면을 볼 수 있다. 한용운이 한보국을 면회를 갔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한보국의 결혼과 철물점



▲ 1934년 10월 22일자
동아일보 홍성지국 총무의 한보국

한보국은 1933년 9월 20일 만기 출소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온다. 한보국은 1934년 10월 13일부로 동아일보 홍성지국의 사무를 보게 된다. 이후 한보국은 홍성에서 강창옥과 결혼을 하게 된다. 제적등본에 의하면 강창옥은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 470번지에서 1917년 1월 3일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04년생인 한보국과 무려 13살 차이가 난다.

10) [中央青年同盟] 集會取締 狀況報告(通報), 『사상에 관한 정보철 제10책』, 京鍾警高秘 제13926호, 1930년 09월 23일.

11) 이 이후 서울에서 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것은 추후기 기회가 되면

12) 『鍾路네거리』, 『삼천리』 제4권 제9호, 1932년 09월 01일.



▲ 한보국이 철물점을 운영하던 206번지 일대

한보국과 강창옥은 1남 5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장녀 명숙은 1936년 10월 20일 내덕리 470번지에서 출생으로 되어있다. 차녀 명계도 1939년 2월 20일 내덕리 470번지에서 출생으로 되어있다.

이 기록을 보면 한보국은 1935년경 강창옥과 만나 사실상 결혼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강창옥은 산후조리를 위해 친정인 내덕리로 가서 두 아이를 낳은 것 같다. 그리고 한보국은

아들 명진을 낳는다. 1941년 4월 20일 생인 아들 명진이 태어난 곳은 오관리 212번지로 되어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댁에서 낳은 것을 보면 이 당시에 한보국은 철물점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보국은 1940년 7월 18일 호적을 추적한다. 호적의 취적은 자녀들 보다는 철물점 운영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그런데



▲ 한보국 집을 지었던 오관리 474번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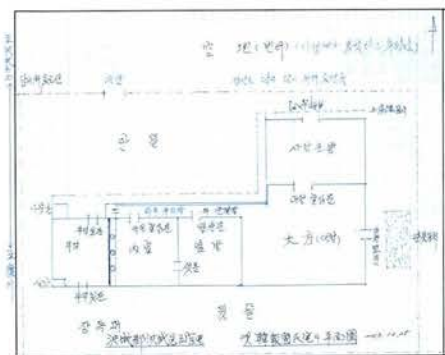
한보국은 아들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된다. 아들 명진이 두 살 때인 1942년 7월 4일 사망한다. 명진이 사망한 곳도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한보국은 다시 셋째 딸 명자를 낳는다. 명자는 1943년 7월 2일 출생으로 아들 명진이 죽은 지 1년 만에 태어난다. 그런데 명자의 출생지는 206번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창옥이 철물점을 경영하면서 철물점에서 셋째 딸을 낳은 것

으로 보인다. 넷째 딸 명세는 해방 이후인 1947년 6월 30일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북한에서 다섯째 딸을 낳은 것으로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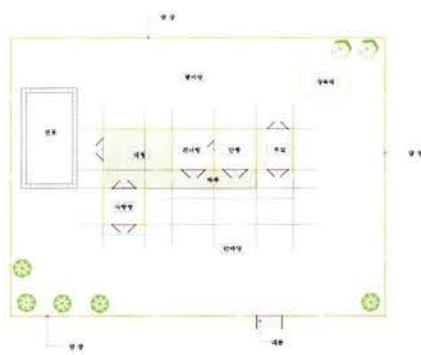
한보국은 결혼한 이후 동아일보 지국과 함께 철물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철물점을 운영한 곳은 홍성읍 오관리 206번지이다. 일설에는 오관리 218번지 일대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조사 결과 206번지가 정확한 것 같다. 212번지의 집과 가까운 곳, 그리고 홍주성이 절단되어 도로가 개설된 곳 바로 옆에 철물점을 열어 경영한 것이다.

한보국은 1943년 9월 <가야동지회>를 조직한다.¹³⁾ 유승준, 박설봉, 조영행,

13) 장규식, 『해방후 홍성지방 중도우파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건설운동』,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98.



▲ 한보국이 지은 집(전병준 증언)



▲ 한보국이 지은 집(전병준 증언 재구성)
홍성건축사 김동윤 제공

이인상, 송병진, 심상직, 한보국, 김동진, 강창록, 이인현, 최덕길, 이강세 등 12명은 관술을 따라간다는 명목으로 도시락과 톱을 들고 가야산에 비밀리 모여 국제 정세와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 토론을 하던 조직이다.

한보국은 해방되기 1년 전인 1944년 8월 9일 오관리 474번지를 박창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때의 주소는 철물점을 운영하던 홍성읍 오관리 206번지로 기록되어 있다. 한보국은 오관리 474번지 집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것으로 보인다.¹⁴⁾ 한보국의 이 집은 해방공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용운과 한보국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다. 조사 과정에서 전편의 내용이 이번 글과 다른 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용운(한유천)은 결코 몰락한 가난한 양반의 후손이 아니었다. 또한 그간 알려진 홍성의 남문동 집 또한 홍성읍 오관리 474번지가 아니고 홍성읍 오관리 212번지였음도 알 수 있었다. 한보국이 홍성에서 중외일보 기자와 동아일보 홍성지국 그리고 철물점을 운영하며 가야동지회를 만들어 활동했음을 간단히 살펴보았다.

지면의 제약으로 한보국의 활동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였다. 만해 한용운의 홍성에서의 행적 특히 남문동 집인 212번지에 안내판이라도 세워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그리고 좌파의 지도자로만 알려진 한보국에 대해서도 최소한 해방 이전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본다.¹⁵⁾ ♠

14) 모종건(77세, 홍성읍 고암리 거주)씨에 의하면 1947년 당시 남장리에 거주하며 홍성읍으로 학교를 다니는 중 한보국은 직접 자녀와 함께 오관리 474번지 집의 담장을 쌓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다.
15) 한용운과 한보국의 자료를 찾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전병준씨와 모종건씨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리고 도면을 그려주신 홍성건축사 김동윤씨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조선시대 홍성지역의 재지세력 1

김경수 | 청운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재지세력이란 국가 권력과 어느 정도 대립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향촌에 토착화한 재지세력을 말한다. 성격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용어가 지니는 사전적 의미로 국한한다면, 향촌에 토착화한 재지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홍성지역 재지세력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종족 마을과 사족 집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조선시대의 홍성은 충남 서북부 정치·경제와 행정·교통의 중심지였다. 동쪽은 예산군, 서북쪽은 서산시, 남쪽은 청양군 및 보령시와 접하고 있다. 장항선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육로의 요지이고, 해로 상으로 서해 도서의 관문으로 인천과 군산을 잇는 요충지였다.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많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홍주문화권'이라는 독자적인 사상 및 문화 권역을 이루었다.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충청 서북부지방의 행정·문화의 중심 거점으로서, 이른바 '내포문

화권'의 정치, 경제, 행정 및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다.

조선의 건국 이후 다양한 변화과정이 진행될 때 홍성지역 역시 지방행정체계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선초기에 충청도 5개 진관(鎭管, 공주·충주·홍주·천안·청주) 중의 하나로 목사가 겸임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파견되었고, 그 결과 이전 시기보다 확대된 5개 군 14개 현¹⁾을 관할하게 되었다. 조선중기에는 충청도 서부일대 17개 역을 관장하던 금정도(金井道)가 청양에서 홍주로 이관되면서 조선후기까지 공주와 함께 절정의 성세를 유지했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27개 면을 관할할 정도로 내포지역 중 최대의 영역을 이루면서 충청도의 정치와 경제, 사회 및 군사적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홍성의 지리적 특성은 서해를 통해 서울로 갈 수 있는 교통로가 확보되어 중앙정치의 추이를 조망하면서 재기하기 쉬운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 농경지의 확보도 가능하여 재산축적도 용이하였던 만큼 이거성씨가 많았고, 유력 성씨로 성장한 문중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사는 동족마을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였다.

2. 재지세력의 형성과 추이

1) 토착성씨

지역의 토성 변화상을 살피는 것은 종래 지방제도나 향리제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던 지방사·지방지배 연구를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²⁾ 지배세력의 성격과 시기적 변화, 소멸과 성장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토성분정을 연구함으로써 당시 정책적으로 시도되었던 지배세력의 재편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다. 따라서 토성의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해당 시기와 해당 지역의 세력집단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조선시기에 홍성지역의 토착세력 및 이거세력 등을 살필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서 성씨를 수록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각 읍 성씨조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에는 토성·내성·속성·망성(土姓·來姓·續姓·亡姓)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중 소멸된 망성이나 이주해 온 내성 및 속성과 달리 토성은 군현의 성립 이래 각 지방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세력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³⁾ 토성은 지역적 의미의 '토(土)'와 주민적 요소의

1) 서천·서산·태안·면천·온양 등 5개 군과 홍산·덕산·청양·대흥·비인·결성·남포·보령·아산·신창·예산·해미·당진·평택 등 14개 현

2) 이수건, 『한국중세사회사연구』, 일조각, 1984

3) 김동수, 『세종실록지리지의 연구 -특히 물산·호구·군정·간전·성씨조를 중심으로-』, 서강대박사논문, 1991

‘성(姓)’이 결합된 것으로 망성이나 속성, 내성, 사성 등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특정 지방에 토착하고 그 지명을 본관으로 했다고 해서 토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구획(區劃) 초(初)부터 토착하며 군현성립에 참가했기 때문이다.⁴⁾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 각 도의 성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성만 별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계
토성 수	223	271	517	500	106	100	1717
비율	13%	16%	30%	29%	6%	6%	100%

표 1)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도별 토성

표에서 보듯이 토성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지역, 경상과 충청 순이다. 이들 세지역의 토성이 1,288개로 전국 토성의 75%를 차지해 조선시기 3남을 중시한 이유가 물산 못지않게 인적자원이 풍부했음을 알 수 있다.⁵⁾ 홍성지역의 사례를 보자.

조선전기의 『세종실록지리지』부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홍성군지』까지 각 지리지에 수록된 홍성의 성씨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지리지	지역	성 씨
세종실록지리지 (1454)	홍주	토성(이(李)·홍(洪)·한(韓)·송(宋)·백(白)), 망성(조(趙)), 차리성(윤(尹)·보(甫)·노(盧)), 촌성(장(張)·최(崔)·만(萬))
	결성	토성(한(韓)·장(張)·조(趙)), 내성(문(文)), 없어진 촌성(방(方))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홍주	리성(홍·이·한·송·백·조(趙)·윤·보(甫)·노(盧)), 촌성(장(張)·최·만(萬))
	결성	내성(장·한·조·문), 촌성(방(方))
여지도서 (18c 중)	홍주	이·김·황·채·한·권·임(林)·홍·윤·강·안·양·박·최·조(趙)·허·장(張)·정(鄭)
	결성	장(張)·한·조(趙)·문·방·전(田)·서(徐)
충청도읍지 (영조~헌종) (18c 중~19c 초)	홍주	이·김·황·채·한(韓)·조(趙)·권·임(林)·임(任)·홍·송·성·정(鄭)·심·윤·강·양·박·오·서·손·최·주(朱)·문·전(全)·방·전(田)·허·강(康)·노(盧)·모(牟)·명·인(印)·예(芮)·염(廉)·호(扈)·복(卜)·우
	결성	토성(장·한·조), 내성(문), 촌성(방), 신증(전(田)·서(徐))
홍성군지 (1924)	홍성	이·김·황·채·한(韓)·조(趙)·권·임(林)·임(任)·홍·송·성·정(鄭)·심·윤·강·양·박·오·서·손·최·주(朱)·문·전(全)·방·전(田)·허·강(康)·노(盧)·모(牟)·명·인(印)·예(芮)·염(廉)·호(扈)·복(卜)·우(禹)·변(邊)·장(張)·노(魯)

표 2) 지리지 수록 성씨

4) 이수건, 『토성연구』, 『동양문화』16, 1975

5) 전용우, 『호서사람의 형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박사논문, 1994

토성과 관련하여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는 변화는 조(趙)씨가 추가된 것과, 홍주이씨와 홍주홍씨의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시기에 홍씨보다 이씨들의 인물 배출과 활동이 왕성했던 것에서 짐작이 가능할 뿐이다.

홍주이씨 가문에서는 이서가 인물조에 기록되었고, 홍씨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인물조에 실린 북한과 한원발(韓元發)이 주리(州吏)였다는 것을 보면 토성 한씨들이 향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성의 경우도 한씨, 장씨, 조씨 순이었던 것이 장·한·조로 바뀌었고, 인물조에 고려조의 장하(張夏)가 수록되어 있다. 신평의 토성이었던 신평이씨는 이침이 인물조에 수록되어 있다.⁶⁾

현재의 홍성지역은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인 15세기에는 홍주목과 결성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홍주와 결성의 토성과 촌성으로 아홉 성관[이·홍·한·송·백·장·최·만·조(李·洪·韓·宋·白·張·崔·萬·趙)]이 기록되어 있다. 적어도 이들 성관이 15세기 이전까지 홍성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토착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러나 주요 성씨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사마시 입격자 분포로 볼 때, 담양전씨(9명/11명, 결성/홍주)와 순창임씨(5명/7명, 결성/홍주) 등이 숙종 이전에 집중 배출했던 점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홍성지역 향촌사회는 중기 이후 입향하기 시작하여 후기에 세력을 구축한 이거성씨들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홍주목의 리성(吏姓)으로 홍·이·한·송·백·조(趙)·윤·보(甫)·노(盧) 등을, 촌성으로 장(張)·최·만(萬) 등을 기록하고 있다. 결성현은 내성으로 장·한·조·문을, 촌성으로 방(方)을 기록하고 있다. 홍주의 경우 15세기의 토성과 망성, 차리성이 모두 리성으로, 결성은 15세기의 촌성과 내성이 내성으로, 사라진 촌성(방(方))을 촌성으로 기록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16세기로 내려오면서 15세기의 토성과 차리성(次吏姓)이 모두 리성(吏姓)으로 변하면서 재지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 이후로 내려오면서 전국적인 사회변화와 더불어 홍성지역에도 많은 성관이 등장하였다. 『여지도서』에 기록된 25개 성관(홍주 18개, 결성 7개)이 『충청도읍지』에는 45개(홍주 38개, 결성 7개)로 증가했으며, 1924년에 편찬된 『홍성군지』에는 41개가 기록되어 있다.⁸⁾ 41개의 성씨에는 『충청도읍지』에 기

6) 홍주대관편찬위원회, 『홍주대관』, 2002

7) 이 시기의 주요 토성과 이거성씨에 대한 소개는 『홍주대관』 참조.

8) 이 시기에는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진 뒤로 홍주와 결성이 합쳐져 홍성으로 변했다. 특이한 점은 변(邊)·장(張)·노(魯) 등 3개의 성씨가 새롭게 추록되었는데, 장씨는 『충청도읍지』에 누락되어 있다.

록된 홍주와 결성의 성씨가 모두 기록되었으며, 새롭게 추록된 것은 변(邊)씨와 노(魯)씨 등이 보인다.⁹⁾

한편 일제강점기인 1924년에 편찬된 『홍성군지』에는 각 마을의 세거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의 어느 시기에 입향했고, 사족집단으로 성장했는지 살피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300년 전 월산리에 안동장씨가 경성(京城)에서 백월산 아래에 세거하기 시작했다는 기록¹⁰⁾은 17세기경에 안동장씨의 입향이 이루어졌고, 이 시기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¹⁾ 여기에 수록된 세거성씨들의 입향 역시 대체로 조선중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조선중기 이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세거성씨가 증가했다는 사실은 중앙정치의 변화가 매우 심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성관의 입향과 명문가의 낙향 등이 빈번하게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의 하나인 김씨(안동 및 경주)의 기록이 18세기 중엽의 『여지도서』에 처음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홍성 각 마을에 세거했던 주요 성씨를 살펴보자.

2) 세거성씨

앞에서 조선시기부터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각 지리지의 성씨조에서 보았듯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홍성의 성씨 역시 조선후기에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인물의 배출도 괄목하게 증가되었다. 이제 홍성지역 각 읍면에서 세거했던 성씨 중 사마시 입격자를 5명 이상 배출한 가문 위주로 그 추이를 살펴보자.¹²⁾ 먼저 결성현 관할의 구항면을 보자.

먼저 구항면의 담양전씨는 조생(祖生)의 차남 엄(滄)¹³⁾이 고려 말 조선 초 구항면에 입향하면서 세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¹⁴⁾ 엄은 태종대 감찰을 지낸 경력이 확인되며¹⁵⁾, 관직에서 물러난 뒤 낙향·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 윤수

9) 이들 성씨의 이거가 늦은 이유도 있겠지만, 『홍양사』와 『홍성군지』의 세거성씨조에도 보이지 않는다.

10) 『홍성읍지』, 권2, 세거성씨조, 1924

11) 이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홍성군지』에 수록된 각 마을의 세거성씨를 부록 2)로 정리하였다.

12) 이에 대해서는 지역 향토사가의 조연과 『홍주대관』(2002년), 홍성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간행한 읍면지(『홍성읍지』, 『금마면지』, 『홍북면지』, 이상 2008년, 『장곡면지』, 『광천읍지』, 『갈산면지』, 이상 2010년, 『홍동면지』, 1994년, 『결성면지』, 1994년)를 참고하였다. 한편 지역에서 일정한 세력화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주요 성씨의 경우 5명 이하의 입격자를 배출했더라도 살폈다.

13) 부인은 공주 이안(李安義)의 딸이다.

14) 담양전씨의 입향과 정착에 대해서는 『담양전씨 홍주문중사』(담양전씨 홍주문중사 편찬위원회, 2007)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15) 『태종실록』 권4, 2년 7월 갑신(甲申).

(允穗)의 묘소가 홍동면 만경산에 있고, 손자 실(實, 1432~1506)이 은율과 금천, 고령의 현감을 역임하고 말년에 구룡리 구산(龜山)기슭에 은거하고 호를 구재(龜齋)라 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⁶⁾

현재 구항면의 내현리, 황곡리, 태봉리 등지에 100여 세대 350여 명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으며, 내현리에는 삼은[녹생·귀생·조생(祿生·貴生·祖生)]을 봉안하고 매년 10월 초하루에 시향을 올리는 구산사(龜山祠)가 건립되어 있다. 담양전씨의 사마시 입격자 11명의 거주지는 결성(10명), 홍주(1명)이고, 입격 시기는 정조대 2명 이외에, 나머지 9명은 숙종 이전이다. 이렇게 볼 때, 담양전씨는 조선초기에 이미 결성지역에서 재지세력화 했음을 알 수 있다.

연산서씨는 조선초기에 연성군(連城君) 서준영(徐俊英)의 아들 보(寶)가 처가인 결성현 구항촌(현재의 구항면 지정리)에 입향하면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서보는 조선이 건국되자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키고자 결성현 보개산 아래 구항면(덕은동)에 은거하였다. 서보의 처는 충청도사 사천 김유무(金有武)의 딸이다. 김유무는 구항면에 은거했던 결성 장하의 사위였고, 장인으로부터 가옥과 토지를 물려받았다. 김유무가 아들이 없어 사위 서보가 물려받으면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¹⁷⁾ 4명의 입격자가 모두 결성출신으로 영조 이후에 합격하였다. 광천읍을 보자.

광천읍 내죽리 내죽마을 연일정씨의 입향조는 성남(成南)이다. 중추원 의관을 지낸 그는 부여에서 살다가 이거한 것으로 알려진다. 연일정씨의 입격자는 한명도 없다. 내죽리의 죽전마을에 세거하고 있는 신평이씨¹⁸⁾의 입향조는 중시조 원상(元祥)의 10세손인 광식(光植, 1613~1632)이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침이 있는데, 정몽주 일파로 몰려 결성현으로 유배왔다. 홍동면 화산리에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모충각(慕忠閣)이 1940년에 건립되었으며, 현재까지 400년 가까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효종 때 홍주 거주자로 1명의 입격자를 배출했다.

대밭(竹田)의 경주김씨는 응청(應靑, 1619~1702)이 낙향하여 후학을 양성하

16) 후손 전하수(전 홍주향토문화연구회장)의 증언과 조성미의 글(『구재패록』, 『홍성문화』161, 2007) 참조.

17) 연산서씨 가문에서는 돌에 새긴 족보(석보)가 유명하다(충남 문화재자료 354호). 1853년 연산서씨 시조로부터 14세손 송자공파 서성중(徐誠中), 현중(鉉中), 대중(大中) 형제가 돌에 족보를 새기고 세거지인 덕은동 암석에 굴을 파고 4장의 돌에 새긴 것으로 매년 석보대제를 올리고 있다.(『홍주대관』, 2002)

18) 신평(新平)은 홍성에 속해있던 옛 지명이며 현재의 당진군지역이다. 백제 사평현이었는데, 신라 경덕왕 때 신평으로 개명되었다.

였다고 하며, 현재의 서당동이 그곳이다. 그의 장남 덕(惠, 1640~1725)이 동지 중추부사를, 차남(영진)이 이조참의를 지냈다. 김응청과 덕의 묘소가 금반산 대밭 뒷동산에 있다. 13명의 입격자 중 1명만 결성출신이고 모두 홍주출신이다. 이 가문의 경우 조선초기에 결성으로 입향하였다가, 조선후기에 홍주로 이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암리 소용마을의 함평이씨는 이효원(李孝元, 1556~?)의 아들 정이 청양에서 홍주 화성 도곡으로 이거하였고, 손자 경(垓)이 홍주 궁경면(躬耕面), 현손 영운(榮運, 1745~?), 건운, 복운 3형제가 결성현에 입향하였다. 마을 대부분의 토지와 산봉리 공동묘지 등이 모두 집안의 소유였고, 3천석 부자라고 할 만큼 재력을 소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수기가 되면 벼를 싣고 집으로 들어가는 수레가 줄을 이을 정도였다고 한다. 5명의 입격자 중 4명이 결성출신이고, 모두 영조 이후에 입격한 것을 보면, 조선후기까지 재지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성면과 은하면을 보자.

결성면 용동리에는 경주정씨가, 와리와 평산리에는 밀양박씨가 입향하였다. 5명의 입격자를 낸 밀양박씨는 시기적으로는 명종대 1명과 숙종 이후에 4명, 출신지역으로는 결성(2명)과 홍주(3명)가 비슷하다. 은하면의 장곡리와 대율리에는 담양전씨가, 장척리에는 결성배씨가 입향하였다. 결성배씨의 입향조 배윤(裵潤)은 김종서의 처남이었는데, 김종서가 계유정난으로 피화되자 유랑하였다고 한다. 아들 윤심(允謙)이 당숙이 현감으로 있던 결성으로 낙향하였다고 한다. 족보에 의하면 윤심의 아들 혼보 때에 은하면 장척리 월오동에 입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⁹⁾ 이제 홍주 관할의 장곡면을 보자.

현재 장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상당수는 백년 이전에 입향한 사람들의 후손으로 보이는데, 언제 무슨 이유로 입향했는지는 상세히 알기 어렵다. 양란 등 국란을 겪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거해오는 등 대체로 16세기 이후에 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간혹 ‘○씨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골짜기’ 또는 ‘아무개씨 고춧’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는 것은 양란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발달과정에서 여러 성씨의 이동이 있었음을 반영한다.

19) 홍주대관편찬위원회, 『홍주대관』, 2002

가송리의 단양우씨, 대현리의 밀양박씨와 신천강씨, 행정리의 파평윤씨, 산성리의 양주조씨²⁰⁾ 등이 1600년대에 입향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입향성씨로 추정된다.²¹⁾ 이들의 입향과정을 추적해보면 가까운 보령과 청양이나 홍주에서 분가해 온 경우가 많다. 입향배경은 처향이나 외향의 인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는 많지 않다.

행정리의 홍주이씨 집성촌은 개국공신 이서의 유허가 남아있는 곳이다. 월계리의 해주오씨는 1500년대 이전에 오복남(吳福南)이 월계2리 명천에 자리 잡은 후 월계2리의 대치산을 종산으로 정하고 월계리 신평리 등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오복남의 17세손인 오일만(吳一萬, 1908~1990)이 화양의 ‘두명배미’에 자리 잡으면서 현재까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한다.

대현리의 경주김씨는 여러 갈래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도 지역에 세거하던 김도신(金道信)이 1500년대에 입향하였다고 한다. 보령지역의 대표적인 사족가문으로 김한기(金漢起, 1705~1757)의 묘를 화계리에 조성하면서 그 후손들이 화계리에 자리 잡고 대현리 등 주변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화계리의 입향조는 김한기의 아들 김만주(金萬柱, 1735~?)²²⁾로 보인다.

1500년대에 입향한 것으로 알려진 천태리의 온양정씨가 언제부터 입향해서 살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홍성에서 출생한 정뇌경(1608~1639, 호 ; 운계(雲溪))이 병자호란 당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심양 행을 호종하였으며, 뒤에 누명을 받고 32세에 죽었다. 사후 도승지와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정조 15년(1791) 증손 정이원(鄭履元)이 상언하여 정조 23년(1799)에 정문이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후손들이 묘소가 있는 경기도 광주 장지동에 충정사를 세우고 정문까지 옮겨갔다. 홍주출신으로만 6명의 입격자가 나왔는데, 순조 이후에 4명이 입격하였다. 산성리의 전주이씨는 15대 이상 세거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²³⁾ 홍북면을 보자. ♥

〈다음호에 계속〉

20) 산성리의 양주조씨는 장령공파로 진석(晉錫, 1610~1706)을 중시조로 모시고 있으며, 진석의 아들 태벽(泰壁, 1645~1706)이 인조 때 병자호란을 피해서 낙향하였다고 한다. 당시 태벽의 작은아버지 사석(師錫)이 화를 피하여 예산 대흥에 자리 잡은 것이 인연이 되어 인근의 산성리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21) 현재 장곡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1700년대 이후에 입향한 성씨로 보인다.

22) 김만주의 처는 밀양 박현검(朴玄儉)의 딸로 밀양박씨는 조선중기 화계리의 세거성씨였다.

23) 대현리의 파주염씨와 옥계리의 여주이씨 등도 동일한 경우로 파악되고 있다.



삼준산 주변에 전해오는 전설들

김정현 | 동화작가 · 갈산초등학교 교장

구름다리 전설

삼준산은 해발 490미터이며 홍성군 갈산면과 서산시 고북면 · 해미면의 경계에 걸쳐있다.

삼준산의 최고봉인 압휘봉 북쪽 건너편으로는 연암산이 마주보고 서있다. 연암산 중턱에는 조선시대 유명한 경허선사가 수행했고, 그의 제자 만공스님과 수월스님, 혜월스님이 공부하던 천장암이 뻗어 건너다보인다.

삼준산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구름다리가 있다. 이 구름다리에는 전설도 함께 전해오는데, 전설로 인하여 구름다리가 더욱 유명해졌고 삼준산도 함께 빛나고 있다.

구름다리는 삼준산의 최정상인 압휘봉에서 갈산면 가곡리와 운곡리 사이로 뻗어 내린 운교봉(雲橋峰) 부근에 있다. 구름다리는 총길이가 10여 미터쯤 되고 높이는 5미터쯤 된다. 구름다리의 폭은 60센티미터쯤 되는데 다리에 걸터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까마득하게 내려다보인다. 구름다리 아래에 서있으면 깊은 산속에 숨어서 밖을 내다보며 주변 경계를 하는 동굴 입구가 연상된다.



삼준산 구름다리 모습(아랫쪽)

삼준산 구름다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에 삼준산 아래에 장님이 살고 있었다. 비록 장님이었지만 착한 부인을 얻어서 젓먹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하지만 병약한 부인은 젓먹이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일찍 저승으로 떠나고 말았다.

장님은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었다. 눈만 뜰 수 있다면 어린 딸을 잘 키우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산 중턱 암자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스님은 목욕재계하고 백일동안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날부터 장님은 매일매일 목욕재계하고 산신령님께 정성껏 기도했다. 드디어 백일이 되었고 그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났다.

“너의 정성이 너무도 지극하여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노라. 날이 밝으면 산꼭대기 구름다리에 올라가서 서른세 번을 왕복하여 건너도록 하여라. 주의할 것은 서른세 번 동안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이며, 도중에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하느니라.”

장님은 꿈속에서 깨어나자마자 구름다리로 올라갔다. 산신령님이 가르쳐준 대로 좁은 다리를 더듬더듬 짚어가며 왕복 서른두 번을 건너다녔다. 이제 한번만 더 건너갔다 오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건너갔다 돌아오는데 깜깜하던 눈앞이 환해지면서 희뿌연 하계 검은 물체들이 보였다. 드디어 눈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눈앞이 환해지면서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절벽에 산삼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장님은 처음 보는 식물이었지만 술하게 듣고 들었던 산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장님은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건너오다가 잠깐 멈추고 절벽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 순간, 장님은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며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마지막 두세 걸음만 잘 건넌다면 소원이던 눈을 뜰 수 있었는데, 그만 산삼에 마음이 빼앗겨서 목숨을 잃었다는 전설이다.

구름다리와 관련하여 장님 대신에 스님이 등장하기도 한다. 삼준산에 조그만 암자를 짓고 싶었던 스님이 백일기도를 하던 중에, 구름다리에서 서른세 번을 왕복하여 건너라는 계시를 받았다. 서른두 번을 건너고 서른세 번째에 산삼을 발견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이다.

두 이야기가 등장인물만 다를 뿐, 전체적인 내용이나 속에 담겨있는 주제가 비슷하다.

소년 김좌진을 깨우친 삼준산 산신령

삼준산 무네미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갯골 삼거리가 나온다. 이곳은 갈산에서 고북면 장요리로 넘어가는 산고개이다. 지금은 등산객들이나 넘나드는 인적 끊긴 산고랑이지만, 옛날에는 해미와 홍성을 오가는 사람들로 번잡하던 고개이다.



삼준산 갯골 주변 골짜기 모습



다정다감한 계곡물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무네미 계곡 모습



갯골 삼거리 모습

이곳 삼준산 고개에는 김좌진 장군과 관련된 전설이 하나 전해온다.
 갈산지역에는 김좌진 장군의 어린 시절 힘자랑 이야기가 많이 전해온다.
 김좌진 장군의 힘자랑 이야기 중에는, 대못을 엄지손가락으로 꿋 밀어서 나무
 에 박았다는가, 벋가마니를 한손으로 가볍게 들어서 던졌다는가, 젊은 청년들
 여러 명과 줄다리기를 하여 이겼다는가, 집 앞의 들돌을 번쩍 들어 올렸다는
 얘기들이 재미있게 전해온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힘이라면 자신 있었던 김좌진 장군도, 소년시절에 힘내기를
 하여 딱 한번 졌다는 얘기가 전설로 전해오고 있다.
 전설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소년 김좌진이 해미 쪽으로 심부름을 가기 위해 삼준산 고개를 넘어갈 때였다고 한다. 때마침 멀찍이 보이는 앞쪽에는 상주 한명이 지나가고 있었고, 주변에는 젊은 나무꾼들이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다.

젊은 나무꾼들은 험상궂게 인상을 쓰며 상주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남의 동네를 지나가는데 통행세를 내라고 텃세를 부리고 있었다. 상주는 돈을 갖고 있지 않으니 한번만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얼굴표정은 겁에 잔뜩 질리고 목소리는 달달 떨고 있었다.

동네 젊은이들은 상주가 빌다시피 하며 통사정을 하는 데도 소용없었다. 돈이 없으면 매라도 맞고 가라면서 우르르 달려들었다. 상주를 땅바닥에 쓰러뜨리더니, 몰매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멀찍이에서 바라보던 소년 김좌진은 화가 났다. 다급히 달려가서 나무꾼들에게 소리쳤다.

“여보쇼! 이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에 잠겨있는 분인데, 위로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당장 그만둘 두쇼.”

갑자기 방해꾼을 만난 나무꾼들이 김좌진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다. 아직도 어려보이는 애송이 소년이 참견을 하는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 모습이었다.

“너는 뭐하는 녀석인데 어른들 하는 일에 끼어드는 거냐? 그렇다면 네가 대신 매를 맞고 가려느냐?”

나무꾼들은 김좌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무꾼들은 힘이 장사인 김좌진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불과 몇 분 만에 썩은 나무 쓰러지듯이 모두 나가떨어지고 말았다. 나무꾼들은 나뭇짐을 내팽개치고 줄행랑을 치기 바빴다.

나무꾼들을 물리친 김좌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당연히 옆에 있어야 할 상주가 없었다. 둘레둘레 주변을 살피보았다.

김좌진은 저만큼 앞쪽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상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벌써 멀찍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다. 김좌진은 슬그머니 화가 났다. 위험에 몰린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도망치는 모습이 괘씸하기만 했다. 단숨에 상주 앞에까지 달려가서 길을 막았다. 상주에게 대들며 따지기 시작했다.

“상주님, 사람이 어쩌면 그럴습니까?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상주님을 구해줬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가시다니요. 더구나 제가 나무꾼들과 싸우는 틈에 도망가다니요. 너무 비겁합니다.”

그러나 상주는 고맙다는 인사나 사과는 커녕, 자신은 힘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소년 김좌진은 상주의 대답을 듣고 더욱 화가 났다. 세상에 힘이 있는데도 매를 맞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힘이 좋으면 나를 때려서 눕히든지, 힘내기를 하여 이긴 후에 길을 가라고 욕박질렀다.

하지만 상주는 고개를 흔들었다. 힘자랑은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김좌진을 달랬다. 김좌진은 더욱 화가 났다. 팔팔 뛰며 싸울 듯이 상주의 앞길을 막았다.

결국 김좌진의 고집에 상주는 힘내기에 응했다. 힘내기 방법은 땅바닥을 주먹으로 쳐서 많이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결정했다.

먼저 김좌진이 주먹에 힘을 주고 땅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주먹이 반쯤 땅속으로 들어갔다. 정말로 대단한 힘이었다. 이번에는 상주 차례였다. 상주는 김좌진을 힐끔 한번 쳐다보더니 힘도 안들이고 주먹을 내리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상주의 주먹이 완전히 땅속에 폭 파묻히는 것이었다. 김좌진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폭 파인 주먹자국의 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김좌진은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분명히 힘내기에서 진 것이었다. 상주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상주가 또 안보였다. 불과 몇 초의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도 상주가 온데간데없었다.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상주의 모습이 없었다.

“상주님, 상주님…….”

김좌진이 아무리 외쳐 불러도 상주는 보이지 않았다. 깊은 삼준산 골짜기를 울리는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영리한 김좌진은 짐이는 것이 있었다. 상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삼준산의 산신령이 상주로 변해서 자신을 깨우쳐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삼준산 산신령은 남달리 힘이 세고 의협심이 강했던 김좌진의 됴됨이를 일찍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김좌진이 삼준산을 넘어갈 때, 상주로 변장하여 나타난 것이다. 김좌진에게 그 힘을 헛되이 아무데나 쓰지 않고 값진데 써야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사라진 것이다.

그 뒤로 김좌진은 힘을 아무데서나 쓰지 않았다고 한다. 힘을 더욱 갈고 닦아서 나라의 독립을 되찾는데 값지게 쓸 수 있었다고 한다.

삼준산에 오를 때마다 생각나는 김좌진 장군의 소년시절 이야기가 많은 것을 깨우쳐주곤 한다. 소년 김좌진이 삼준산 산신령을 만난 산고개가 어디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등산길의 재미를 한껏 높여주는 전설이다.

쌀이 나오던 용바위

삼준산의 옛 절터인 삼준사지에는 삼준암이라고 부르는 작은 암자가 있다. 삼준암에는 석탑 1기와 절의 내력을 추측할 수 있는 기와편과 토기편들이 산재해 있다. 이곳 석탑이 옛 모습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오래된 절터라는 것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삼준사지 전경

삼준사지에도 재미있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삼준사지 뒤편으로는 절벽 같은 바위가 있다. 절벽 아래로 조그만 굴이 있는데, 이곳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다. 옛날부터 약수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이 바위에 전해오는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 모습을 잃어버린 석탑 모습

이 바위에서 옛날에 노파 한 명이 살았는데 바위 밑에서 나오는 쌀을 받아서 연명했다고 한다. 어느 날 노파는 욕심이 생겨서 쌀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나뭇가지로 바위구멍을 계속 쑤셨다. 하지만 바위구멍은 자꾸만 줄어들어서 쌀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그 대신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바위와 관련하여 또 다른 내용의 전설도 전해온다. 옛날에 이곳 바위아래 구멍에서 용이 되기 위해 지네가 살았다고 한다. 지네는 백 년 동안 착하게 살아온 공으로 하늘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물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면 닭 우는 소리가 돌리곤 하여 실패를 거듭했다. 결국은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용이 되려다 실패한 지네가 살다 죽었다고 해서, 용바위라고 불렸다는 전설이다.



쌀이 나왔다는 용바위 약수터 모습

비둘기재의 유래

삼준산 아래 가곡저수지 맞은편으로 낮게 지나가는 산줄기가 있다. 이 산줄기에 비둘기재가 있다. 여기에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에 김좌진 장군의 선대 묘소를 쓰기 위해서 삼준산 기슭에 산소자리를 조성하던 중이었다. 산소자리는 가곡저수지 상류 쪽에 있는 호두나무집과 파라다이스 식당의 뒤쪽 산줄기였단다.

산소자리를 한참 파 들어가는데 땅속에서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그 비둘기는 저수지 건너편 산등성을 넘어서 덕산 쪽으로 날아갔다. 그 뒤로 비둘기가 넘어간 산등성을 비둘기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비둘기재 모습

홍성
문화

기행문

‘물레길’ 을 따라 마음을 따라

김유정 문학촌과 남이섬을 다녀와서

정명순 | 물앙금시문학회 회장 · 시인



2013년 5월 25일 한국문인협회홍성
군지부에서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이전을 기념하여 김유정 문학촌 문
학 여행을 계획했다. 문인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지역민들이 함께 떠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했다. 호반의 도
시로 잘 알려진 춘천은 한번쯤 가보
고 싶은 곳으로 꼽힌다. 하루 일정의
춘천여행은 무리였지만, 김유정 문학촌과 소양강, 남이섬을 둘러보는 계획을
세우고 아침 7시 30분 이른 출발을 했다.



그림1 김유정 문학촌 생가에서

문학답사를 기다리며 오랜만에 김유정 작품집을 꺼내어 보았다. 「봄·봄」,
「산골나그네」, 「동백꽃」……. 어릴 적 기억처럼 어렴풋한 이야기들이 사뭇 다
른 느낌으로 책속에서 흘러나왔다.

1908년 춘천시 신동면 실레마을에서 태어난 김유정은 어려서 서울 종로로 이
사한 뒤, 7살과 9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여의고 한때 모성 결핍으로 말을 더
듬었다고 한다. 유정의 모성 콤플렉스는 청년기 비극적 사랑으로 이어졌다.
1930년 연희전문 문과에 입학했으나 당대 명창 박녹주에게 빠져 방황하다가
잡은 결석으로 두 달 만에 제적당했다. 박녹주를 보고 한눈에 반한 유정은 편
지를 보내는 것으로 구애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 후 만나본 적도 없는 박
봉자를 한 잡지에 나란히 글이 실린 것을 계기로 편지를 보내며 사랑을 갈구했
지만, 그녀에겐 이미 약혼자가 있었다.

실연과 학교제적이라는 상처를 안고 귀향한 유정은 실레마을에 금병의숙을
지어 야학 등 농촌계몽활동을 벌이며 1930년대 농촌 현실을 체험한다. 1933년
다시 서울로 올라가 농촌과 도시 밑바닥 인생이야기를 소설로 쓰기 시작하여,
1937년 폐결핵과 치질이 악화되어 숨을 거두기까지 30여 편의 단편소설을 남
겼다.

11시 30분 김유정 문학촌이 있는 소레마을에 도착했다. 12개 작품의 소재가
된 소레마을은 금병산에 둘러싸인 모습이 마치 옹골찬 떡시루 같다고 해서 불
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소레마을은 생가와 기념전시관, 금병의숙을 비롯하여

마을 전체가 작품의 무대로 꾸며져 있었다. 김유정은 그의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에서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 리가량 산을 끼고 고 불고불 돌아 들어가면 내당은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에 굽적굽직한 산들이 뻗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하여 동명을 실례라 부른다. 집이라야 대개 쓰러질 듯한 한 초가요, 그나마도 오십호밖에 못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빈약한 촌락이 대표적인 문학의 고향으로 우뚝 서있었다. 잠시 옛 생각을 하며 김유정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림2 김유정 생가와 동상



그림3 김유정 문학촌 입구

지주의 딸 점순, 머슴인 '나' 「봄·봄」

'나'는 점순이와 혼인시켜 준다는 약속을 믿고 3년 7개월 동안 한 톨도 안 받고 머슴살이를 한다.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달라고 하면, 점순이 아버지는 점순이 키가 자라지 않아 안 된다고 한다.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할 것이냐고 따진다. '나'는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일을 하지 않다가 오히려 뺨을 맞는다. '나'는 장인을 구장 댁으로 끌고 가 혼인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리고 '나'는 주인의 세 번째 데릴사윗감이며, 장인이 만딸의 데릴사윗감을 열 명이나 갈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장인과 '나'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점순이가 '나'에게 달려들어 귀를 잡아당기며 운다.

그림4 봄·봄 조형물





그림5 동백꽃 조형물

지주의 딸 점순, 소작인의 아들 '나' 「동백꽃」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지만 닭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상한 '나'는 점순이가 건네준 감자를 거절한다. 마음이 상한 점순이는 툭하면 자기 집 수탉을 데려와서 '나'의 닭을 괴롭힌다. '나'는 번번히 당하는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싸움에서 또 지고 만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점순이가 또 수탉을 괴롭히자 화가 나서 막대기로 점순네 닭을 때렸는데 죽어버린다. 소작인의 아들인 '나'는 큰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울음을 터트리고 점순이는 '나'를 달랜다. 그리고 동백꽃 숲에서 점순이는 '나'를 잡고 넘어지면서 둘은 동백꽃 사이로 눕는다. 이때 점순이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에 점순이는 겁을 먹고 기어 내려가고, '나'는 산으로 달려간다.

순박하고 아름다운 어린 소년과 소녀의 사랑. 약간은 구식이라 직설적 표현을 좋아하는 요즘 세대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되는 심리를 잘 묘사하여 은근한 매력이 있다.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른다. 소설 속의 동백꽃은 흔히 떠올리는 붉은 동백꽃이 아닌 생강나무 꽃이며, 가요 「소양강처녀」에 나오는 동백꽃도 생강나무의 꽃이다. 김유정은 '노란 동백꽃'을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그 내음새'로 묘사했다.



그림6 소양강처녀 동상과 노래비

김유정이 살았던 1930년대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으로 사회 전반이 암흑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정은 소작농, 유랑민, 노동자, 거지 등 소외된 빈민의 문제를 해학으로 작품화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명한 소설가, 길가에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고 있었다.

하루 쯤 소레마을에 묶으면서 소설을 읽듯 마을을 천천히 돌며 보고 싶었다.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춘천에 왔으니 소양강 바람이라도 쐬어야 하지 않을까.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올레길’이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곳에서는 물의 고장답게 ‘물레길’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 젖줄인 소양강. 호수를 한 바퀴 도는 유람선과 청평사로 가는 유람선, 이것 역시 다음으로 미루어놓고 ‘소양강처녀’ 노래비와 동상 앞에서 호수의 잔잔한 바람을 가슴에 담았다.

무색, 무미, 무취, 100℃로 끓이면 기체로, 0℃로 내려가면 고체로 변하는 물. 어떤 색깔, 향기, 맛이든 모두 받아들여 그 색깔을 만들어 주는 물. 뭉게구름, 비, 눈, 서리, 무지개, 폭포, 바다, 강, 시냇물, 안개, 빙하 …… 물은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하며, 죽은 듯 살아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듯하지만 섬세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물에게 ‘사랑한다’ 말하면 물의 결정은 눈꽃처럼 변하고, ‘죽여버릴거야’ 라고 말하면 물의 결정은 요동치며 허물어진다고 한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할뿐. 물이 만들어 내는 세상은 깊고 넓은 어머니다.

어머니

정명순

사랑한다 말하면, 당신
탁탁 털고 일어나
고운 웃음 지을까요

보고싶다 말하면, 당신
짙은 안개 걷어내며
이슬 맺힌 아침으로 다시 올까요

저수지를 바라보며, 나는
공연히 돌멩이만 던집니다
물살이 일그러지다, 이내
아무 일 없는 듯 잔잔해 집니다
잠시 파문이 일었을 뿐
내가 집어던진 원망을
조용히 끌어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듯 존재하고
죽은 듯 살아있습니다
말 좀 해보라고 소리치면
제 살점을 밀어내며 다가와
낮게 도닥거립니다

바보같다 말하면, 당신
억울하다고 팔뚝 걷어 부치며
불끈 주먹이라도 지을까요

난 그렇게 안살 꺼야 말하면, 당신
한번 살아봐라 헛헛한 웃음지며
내 등을 툭툭 쳐주실까요

마음에 바람이 들어차니 허기가 요동쳤다. 춘천하면 닭갈비와 막국수, 놓칠 수 없는 유혹이다. 여기저기 모두가 원조, 진짜원조, 정통원조라 우기는 식당들 중 하여튼 원조 집에서 닭갈비를 주문했다. 북적거리는 식당에서 매콤하게 즐기는 닭갈비, 사실 맛은 흥성이나 다름이 없었다.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먹느냐의 차이.



그림7 닭갈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2시 30분, 남이섬에 도착했다. 드라마 ‘겨울연가’로 유명해진 남이섬,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는 ‘강변가요제’로 더 기억에 남는다. 젊음과 낭만이 넘실거리는 추억의 섬. 남이섬은 입구부터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입구에 쓰여 있는 ‘나미나라 공화국’이라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입장권이 아닌 비자를 끊어야 했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우리는 배를 타고 남이섬으로 들어갔다.



그림8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배



그림9 남이섬 입구에서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남이섬은 남이 장군의 묘라고 전해지는 돌무더기가 있어서 남이섬으로 불린다. 1965년 섬을 매입한 수재 민병도가 봉분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허묘이다. 실제 남이 장군의 묘는 경기도 화성에 있으며 경기도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었다.

태종 이방원의 넷째 딸 정선공주의 아들이며, 권람의 사위였던 남이는 17세로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병조판서까지 지내며 모든 이의 부러움을 샀으나 한명회, 신숙주 등에 의해 밀려났다가 28세에 유자광의 모함을 받아 역모죄로 처형당했다.

1468년 예종이 즉위한 후 혜성이 나타난 것을 보고, 묵은 것이 없어지고 새것이 나타날 징조라고 말하자, 남이에게 질투를 느껴오던 유자광이 엇듣고 남이가 역모를 꾸미고 있으며, 여진을 토벌할 때 읍은 시에 반역의 뜻이 담겨있다고 모함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필화(筆禍)사건.

白頭山石 磨刀盡(백두산석 마도진)
豆滿江水 飲馬無(두만강수 음마무)
男兒二十 未平國(남아이십 미평국)
後世誰稱 大丈夫(후세수칭 대장부)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하고
두만강 물은 말이 마셔 없도다
사나이 스물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일컬으랴



그림10 남이 장군의 허묘

북정가(北征歌) 혹은 북정(北征)이라고 불리는 남이의 시는 젊은 기개를 읊은 시로 유명하다. 유자광은 시 속의 ‘미평국(未平國)’이란 글귀를 ‘미득국(未得國)’이라 조작하여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을 ‘나라를 얻지 못하면’으로 왜곡하고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젊은 나이로 억울하게 죽은 남이는 이를 불쌍하게 여긴 백성들에 의해 구전설화로 다시 살아난다. 그에 대한 전설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연려실기술>의 국조기사에는 남이의 혼인설화가 실려 있다.

“남이가 어릴 때 큰길에 나가 놀고 있었는데 하인이 보자기에 무엇을 싸서 지고 가는데 그 위에 귀신 하나가 올라앉아 있었다. 따라가 보니 하인은 권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곧 집안에 곡성이 나서 물어보니 권대감의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었다. 남이는 자신이 죽은 딸을 살리겠다고 했다. 남이가 들어가 보니 처녀의 가슴 위에 아까 본 귀신이 앉아있는데, 남이를 보자 곧 도망을 가고 죽었던 처녀가 살아났다. 그러나 남이가 방을 나오자 처녀는 또 숨을 거두고 그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곤 했다. 남이가 귀신의 이야기를 권재상에게 하고 나쁜 사귀를 완전히 쫓아버린 후 죽었던 처녀를 살려냈다. 딸을 살려준 은혜를 고맙게 여긴 권람은 남이를 사위로 삼았는데, 권부인은 그가 화를 당하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림11 남이섬 가로수



그림12 남이섬의 여유로운 풍경



그림13 폐품 조형물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63km지점, 청평호수 위에 떠있는 남이섬은 가랑잎처럼 생긴 모양에 둘레는 약 5km에 이른다고 한다.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 잔디밭, 사슴, 타조, 토끼, 새들이 강물로 에워싸인 거대한 정원 남이섬. 1965년 모래펄 땅콩 밭에 수천그루의 나무들이 가꾸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섬 안에는 전시관, 공연장, 갖가지 공원, 문화체험실, 놀이시설, 숙박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섬 곳곳에는 조형물들이 아담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폐품을 활용한 것들이다. 우리는 10명 정도 탈수 있는 '나미나라 공화국 투어버스' 표를 사서 남이섬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누구나 마음속에 추억이 켜여있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다가 문득 튀어나와 생각에 잠기게 하는 젊은 추억들. 남이섬은 가슴 한쪽에 곱게 묻어둔 추억 같은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직 젊음 내가, 세상에 물들기 전의 내가 평화롭게 웃으며 꿈을 꾸고 있다. 잠시 내 마음속으로 조용한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었다.

배를 타고 나오면 다시 현실. 돌아갈 일만 남는다. 하지만 잔잔한 물결과 나뭇잎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스치던 바람은 내 마음을 따라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물길을 따라, 추억을 따라, 문학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조용히 흘러간 날이다.♣



새를 닮은 악기 오카리나와 함께 세계를 향해 날다

조성미 | 홍성문화 편집위원장

오카리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도 수입하는 <노블> 전 세계 37개국에 수출

국제 오카리나 앙상블 콩쿠르 3년째 홍성서 개최

연주자 육성부터 악보출판 공연기획까지 직접 발로 뛰어

노블 오카리나 이종근 사장



홍북면 중계리 이응노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에서 고개쉼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르다 보면 아늑한 산자락에 조금은 이색적인 간판과 예쁜 집 한 채가 눈길을 끈다. <노블 오카리나>. 밤사이 첫눈이 내린 지난 11월 28일 아침 이종근 사장을 만나기 위해 홍성읍내에서 택시를 타고 <노블 오카리나>까지 가자고 주문했더니, 택시 기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하는 말. “처음엔 <노블 오카리나> 간판을 보고 펜션인줄 알았어요. 근데 악기를 만드는 곳이라면서요?” 하는 것이다. 홍성사람들에게 ‘오카리나’라는 악기는 아직 좀 생소한가 보다. 그도 그럴 것이 오카리나는 이탈리아의 전통악기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노블 오카리나>는 이종근 사장(53세)이 동생 종원씨(49세)와 함께 손잡고 2003년 설립했다. <노블(noble)>은 이종근 사장이 직접 개발한 브랜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오카리나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악기이다. 최근 10여년 사이 오카리나 제작자이면서 연주자로, 오카리나 공연 기획자로 활약하면서 홍성을 국제적인 오카리나의 본고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종근 사장을 만났다.

그는 홍성에서 개최되는 제3회 홍성 국제 오카리나 앙상블 콩쿠르를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탈리아의 민속악기인 오카리나와 자신의 인연, 오카리나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동호인 수만 약 400만이 넘는 대중적인 악기로 저변 확대되는 과정을 열성적으로 소개해줬다.

‘오카리나(ocarina)’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작은 거위’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새를 닮은 타원모양의 진흙으로 구워 만든 악기이다. 리코더와 같은 원리로 소리를 낸다. 특유의 소박하면서 맑은 고음의 소리는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소리’로 찬사될 만큼 전 세계에 애호가들이 많다. 우리나라에 오카리나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6년 일본의 오카리나 연주자 <소지로>의 <대황하> OST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모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 무렵 이종근씨는 세운상가에서 악기판매업을 하고 있던 동생 종원씨를 통해서 오카리나를 처음 접했다. 당시 동생은 일본에서 제작된 오카리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우선 생김새도 특이한데다가 작고 조잡하여 악기라기보다는 장난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음악가이면서 손재주 좋기로 소문난 그에게 지인들이 “네가 한 번만 들어보라”고 권할 정도. 실제로 당시에는 국내 오카리나 애호가들이 늘어나면서 소규모지만 오카리나를 직접 제작하는 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했고 손재주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이종근씨는 악기제작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한 때 피아노를 전공한 부인과 함께 홍성초등학교 근처에서 피아노학원을 운영하여 모은 자본금으로 악기제작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가 악기제작자로서 처음 만든 악기는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피페였다. 특허까지 내면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크게 실패하여 일가친척들에게까지 폐를 끼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당시 35살의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그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먹고 살기위해 기악 레슨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그러면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더욱 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시련 속에서 절치부심하며 시작한 일이 바로 <노블 오카리나>이었다.

2003년 홍성초등학교 후문에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을 임대했다. 임대보증금을 낼 형편도 못되었던 그는 건물 주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이 지긋하시던 그 어르신은 딱한 사정을 듣더니 ‘젊은 나이에 한 번 넘어질 수도 있지’ 하시며 열심히 해서 꼭 재기하라며 선뜻 건물





을 내어주셨다. 가난은 이미 여러 번 그에게 시련을 주었지만 음악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시며 가게가 기울었을 때도 그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어떻게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을까 궁금했다.

홍북면 중계리 용봉산 밑에서 태어난 그는 용봉초등학교와 홍주중학교, 홍성고등학교(34회)를 다녔다. “어려서부터 손재주 있다는 소리를 좀 들었죠. 동생 종원이랑 저는 집에 있는 시계, 텔레비전, 라디오 자전거 뭐든지 남기는 거 없었어요. 다 뜯어보고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놀이이면서 일이었죠. 당시에는 기계공고 나와서 기술직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남학생들은 기계공고 가는 것이 추세였어요. 저 역시 공고에 진학할까도 생각했지만,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밴드부가 있는 홍성고에 가게 됐지요. 고등학교 3년 내 내 색소폰을 불었어요.”

“용봉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김인태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음악을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운동장 조치가 있으면 교실에 있던 풍금을 운동장에 내놓고 애국가 반주를 하시던 모습이 생생해요. 자율학습시간에는 용봉산에 올라 요리실습을 한다며 밥을 해먹고 바이올린을 쳐주셨죠. 당시 학교에 풍금이 3대 있었는데 그 중 한대가 우리교실에 있었죠. 열쇠가 채워진 풍금



을 옷핀으로 몰래 따고 선생님 몰래 풍금을 치고 놀았죠. 처음엔 좀 혼내시더니 나중에는 아예 풍금 열쇠를 내주시며 이제부터 풍금 관리를 네가 하라며 맡겨주셨어요.” 이종근씨는 그렇게 독학으로 악보를 읽고, 풍금을 치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의 음악적 재능은 어머니 박정숙(작고)여사에게 물려받은 것 같다. 그의 어머니는 정규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호드기로 아리랑을 연주할 정도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마을 농악대에서 연주되는 모든 악기를 능란하게 연주할 정도였다.

‘오카리나’라는 악기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어떤 악기보다 빠르게 대중 속에 파고들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흐름에 주목하면서, 품질은 떨어지면서도 값비싼 수입 오카리나보다는 품질 좋은 국산 오카리나를 생산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창업 초기 품질개발에 온 힘을 기울이는 한편 처음부터 대량생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수입 오카리나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품질을 높이는 것이었다. 정확하고 좋은 소리를 내는 오카리나 제조기술을 앞세워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한 것이 제대로 먹혀들면서 창업 초기부터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대량생산과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단박에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이종근 사장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 이종근 사장은 본인이 음악가로서 단순한 독주 오카리나만으로는 생명력이 짧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카리나가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대중성을 얻었지만 지금과 같은 단순한 독주 형태만 가지고는 금방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일찍부터 오카리나의 고급화를 고민해왔다. 오카리나가 대중 속의 음악인들에게 오래도록 연주되기 위해서는 단조로운 독주보다는 보다 다양한 앙상블 연주가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협주를 위한 악보도 없고, 악기도 없었다. 이종근 사장은 우선 고음부터 저음까지 7중주가 가능한 오카리나를 개발해 만들었다. 그런데 이런 고급의 오카리나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에 판로가 없었다.

이때부터 이종근 사장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한 일이 수준 높은 오카리나 앙상블 연주를 국내에 소개하는 일이었다. 그는 오카리나의 본 고장인 이탈리아의 오카리나 7중주 GOB팀을 초청하여 전국 순회공연을 하고, 국내 오카리나 동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오카리나 앙상블을 소개하고 연주자를 육성하기 시작했다. 오카리나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연주 강습을 하고, 연주회를 연다고 하면 음향기기를 지원하고 동영상 촬영을 해 주는 등 발 벗고 나서서 후원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노블 오카리나 소속의 전속 7중주 앙상블팀을 육성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공연을 하며 오카리나 7중주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오카리나를 협주할 수 있는 악곡의 편곡과 악보를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했다. 지금은 노블 오카리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을 통해 앙상블 연주 악보와 교육용 시범 연주 동영상을 제공해준다. 그는 15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GOB팀의 수석연주자인 에밀레아노 교수를 초청해 한 달 과정으로 마스터클래스를 4년째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오카리나 동호회와 일본, 대만, 중국 등 해외 동호회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콩쿠르도 매년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오카리나 연주자를 육성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하는 이종근 사장의 이 같은 전략은 결국 노블 오카리나의 상품구매와 연결되었다. 음역이 단순한 오카리나를 오케스트라에 버금가는 협주가 가능하게 악기를 개발하고,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들을 노블 오카리나에 맞게 편곡하여 널리 보급하는 일은 결국 회사의 매출을 신장시키는 효과로 연결되었다. 매년 30%씩 꾸준한 성장을 보



인 노블 오카리나는 현재 전 세계 35개국에 수출을 할 정도로 국제적인 악기제조업체로 지명도를 넓혀가고 있다. 국내에 약 21개의 오카리나 제작업체 중에서 노블 오카리나는 매출이나 시장점유율에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종근 사장의 음악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최근 이종근 사장은 하나의 오래된 꿈을 실현시켰다. 정규 음악대학에 오카리나 전공을 만들어 전문 연주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의 오래된 포부였는데 오랜 노력 끝에 세종대학교 실용음악 대학원에 오카리나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2014년부터 학생을 모집하게 된 것이다. 이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까지 정규 교육과정에 오카리나를 배울 수 있는 교육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오카리나가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닌 정규교육을 통한 전문 연주자를 발굴 육성하고 오카리나를 저변에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노블 오카리나는 악기제작뿐만 아니라 악보집 출판, 동영상 제작, 공연기획, 연주자 육성 같은 교육사업 등 여러 관련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면서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인구가 약 400만이 넘는 시대가 열렸다. 2012년 이종근 사장은 사재를 털어 홍성에서 국제오카리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 세계 13개국의 오카리나 제작자와 연주자들을 홍성으로 불러 모아 홍성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과연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홍성에서 개최할 수 있을까에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때 이것을 잘 성사시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노블 오카리나>는 홍성의 문화예술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작지만 세계적인 문화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제공 조남민(홍성문화 편집위원)



시

오서산

주호창 |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인 · 수필가 |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서산 마루에 노을 지고
산허리에 메아리칠 때

억만년 끊임없이 이어 온
새소리 바람소리
풀벌레소리까지

시시 때때로 갈아입은
화려하고 장엄한 그 모습
전설 따라 높아 진 오서산 정상!

어머니

이현조 |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사무국장 · 시인 |

저울추처럼 양 손에 매달린 검은 비닐봉지
물수제비처럼 바닥을 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풍당 풍당

봉지가 무거운 건지
세월이 무거운 건지
다섯 걸음을 넘기지 못하고
가다 쉬고 가다 쉬고
느리게
느리게
ㄱ자로 장터를 빠져나가는

어머니,

구남매 업혀 가던 등허리에
낙엽지고 깡마른 하늘이 업혀있다

소나기

윤주선 | 한국문인협회 홍성군지부 회원 · 시인 |

바람 잔잔하던 여름날 오후
어느새 검은 비구름이 소나기로 변하여
멀리서부터 빠르게 쳐들어온다.

툭 툭툭, 참나무 오동나무 잎을 치며 순식간에 숲을 빠져나간 소나기는
푸른 들을 지나 달구어진 함석지붕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난타의 한 장면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튀기칠 때
소나기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넋이 나간 듯 고요함이 흘렀다
쫄르르 물이 흐르는 소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삶이 어디 아름답기만 하더냐?
그렇다고 고달프기만 하더냐?
인생은 어차피 소나기 같은 것
한번쯤은 후회 없이 혼(魂)을 다해
소나기처럼 살아 살아보리라.

봄날이 떨어 있다

윤은진 |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

후두둑 봄비가 내린다
뿌리 깊은 곳에서
메마른 가지마다
물을 받아들이려고
시누대숲이
파르르 떨어 있다
누렇게 바랜 잎들이
연두빛 물을 올리려
몸부림치고 있다

봄이 오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서성거리고 있다
4월에 내린 흰눈이
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움츠러든 몸을 하고서
우산을 받치고
나도 서성거리고 있다



시

자전거

주선미 | 물양금시문학회 회원 |

담벼락에 녹슨 자전거가
힘없이 기대어 있다

큰 손주 태어나 아장아장 걸음마 할 때
앞에 안장 채워 동네 한 바퀴씩 돌고
며느리 시장 볼 때
검은 봉지 주렁주렁 매달고
바퀴살에 번쩍번쩍 윤기나던 것이

손주들은 공부하러 도시로 떠나고
며느리도 승용차로 대형마트 가고
시아버지는 무릎 아파 수술하고

이제는
쓸모없는 고물처럼 녹이 슬어
빛바랜 함석지붕 담벼락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쉬고 있다



허수아비

최규원 | 홍성경찰서 · 홍성문화원 회원 |

벼들이 누렇게 익은 논 자락 모퉁이에 허수아비가 섰다
알알이 영근 제 집을 지키려는 듯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난 가을 어데 론가 날아가 버린 참새를 쫓아 그 모습을 감추더니
올해는 때때옷 입은 신부를 데리고 일찍 들녘으로 찾아왔구나
이왕이면 찢겨진 수건하고 누런 병거지라도 고쳐 쓰고 오시지
팔꿈치 구멍 나 버려졌던 내 윗도리 언제 기워 입고 서 있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때국물 줄줄 흐르는 옷이라도 빨아 입지
하긴 어쩌면 그렇게 서있는 네 모습이 정겨울지도 모르겠다
작년에 너를 보고 놀려대던 참새가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한 두 두 사라지는 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짓더니
올해는 어떤 큰마음 고쳐먹고서 또 같은 자리를 찾았는가
울지 않겠다고 다짐해 놓고서 삭막한 들녘을 바라보며
너를 놀리던 참새마저 떠나면 너는 또 가슴 치며 통곡하겠지
비탈진 논 말리기 위해 물줄기 터놓은 곳마다 제 몸 쳐 박으며
다시는 가을이 와도 찾지 않겠다고 푸념 섞인 흠눈물 흘리겠지
살을 에는 겨울 속에서 너는 버려진 모습 그대로 봄을 맞겠지
고삐 잡은 손을 흔들며 이랴 이랴 밭갈이 하는 농부 곁에서
지지배배 종달새 놀려대며 날아오른 곤충을 쫓는 계절이 오면
너는 언덕에 기대고 누워 참새를 기다리는 가을을 고대하겠지



내 마음의 여행 역사체험기 — 독자기고



민주(民主) 인권(人權)의 성지(聖地) 광주(光州)를 찾아서

5·18 광주 민주항쟁 5월의 길을 따라 만나는 31년 전(前) 광주 그리고 5·18

김정명 | 광천고등학교 교사 |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창의 인성에 관한 연수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계획에 따라 시간을 내어 실행하게 되었다. 이날은 2012년 1월 13일 금요일이었다. 본 대학교의 정문을 빠져나와 우측으로 걷기 시작하였다. 흰 눈은 내리지 않았으나 매서운 겨울 찬바람은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행인에게 길을 물어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조금 걸어갔더니 농산물공판장 앞 버스정류장이 있었다. 상징적인 5·18 버스를 타기 위해 한참을 기다렸다. 움츠러들던 몸을 실은 시내버스는 북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45분이였다. 쏜살같이 달려서 도선사와 석곡치안센터를 지나고 어운마을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하였다. 오른쪽으로 돌아서니 바로 눈앞

에 ‘국립 5·18 민주묘지’, ‘망월동 5·18 국립 묘역’이라는 큰 표지판이 한눈에 보였다. 방문객을 안내하는 조그만 사무실 벽시계가 오후 2시 2분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방명록에 기록을 하고 왼쪽으로 걷게 되었다.

좌측 벽면에 한겨레의 꽃 무궁화의 부조작품이 완성되어 있었고, ‘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국립 5·18 묘지’라고 전각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대형 태극기가 겨울의 찬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이고 있었다. 민주지 문에 들어서자 추념문과 참배광장, 추모기념탑이 묘역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진다. 또 왼쪽에는 5·18 추모관과 역사의 문이 나란히 서있고, 우측에는 유영본 안소가 있다.

5월의 영령을 받드는 형상의 문이라는 추념문을 지나자 참배광장이 나타나고 그 앞에는 5·18 민주항쟁 추모탑이 나타났다. 잠시 높이 솟은 5·18 민주항쟁 추모탑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추모탑은 탑 중앙을 관통하는 문(門)으로 과거와 현재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통로라는 뜻과 오월영령과 우리들이 만나는 일치의 문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강석 탑으로 대형의 기념비적인 추상 조각품이었다. 또한 좌우 대칭형으로 그 가운데에는 추상의 돌모양이 있었다. 이 돌모양은 난형 환조로 손모양의 내부 설치물, 태양광에 반사되는 빛은 구천을 떠도는 혼백,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희망의 씨앗을 상징하고 있었다. 이 추상의 돌모양은 민주항쟁을 위해 피를 토하며 울분에 못



이겨 죽어간 영령들의 목숨을 내건 뼈아픈 광경이었다. 우측 자연석에는 ‘청년의 책임 · 조국의 미래’ 라고 큰 문자로 전각되어 있었다.

묘역 둘레에는 짙은 청록의 늟름한 기상을 지닌 소나무가 숲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우측에는 탑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여러 개의 계단을 딛고 비탈진 묘역에 올라서니 중앙 통로를 중심으로 좌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489명의 희생자가 말없이 안장되어 있었다. 숙연한 마음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묘역을 향하여 참배를 하였다.

이곳은 1988년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신 분들과 당시 부상을 당했거나 구금되어 고문과 옥고를 치른 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이다. 조그마한 석비에는 무명열사의 묘 그리고 성명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 때마침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와 키가 큰 소나무 가지에 앉아 환영의 기쁜 노래 소리로 반겨주더니 이내 날아간다.

계단 부근의 화단에서 김대중 전(前)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기념 식수(植樹)를 보았다. 아담한 상록수의 자태는 김대중 전(前)대통령의 세계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헌신했던 모습이 역력했다. 또한 자유와 민주의 투사였던 그의 정치역사를 엿보는 듯 한 사념의 숲을 잠시 걷게 해주었다.

이 망월동 묘역에는 여전히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영령들을 위로하고 있는 듯했다. 이곳 가까운 어디에선가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들려오는 듯 속삭였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 없이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산 자(者)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者)여! 따르라!”



묘역은 10묘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특히 10묘역은 행방불명자 묘역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나, 시신을 찾지 못해 애처롭지만 봉분 없이 영(靈)만 모셔져 있었다. 비문을 읽으며 봉분을 쓰다듬던 손길은 발걸음을 옮겨 국립 5·18 민주 묘지에 위치한 영상과 사진기록들을 보여주는 기념관에서 전시들을 안타까운 마음의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이후 묘지의 계단을 내려와 좌측으로 조금 걸었다. 또 다시 언덕진 길을 계속 걸어 기와지붕으로 건축된 역사의 문을 통과하였다. 바로 후문 앞이었는데 그 옆에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었다. 다시 돌아서서 우측 담장을 끼고 걸으니 석조 부조상이 눈에 보였다. 일제 치하에서 광주시민들이 항거하는 군상으로 한국인의 뜨거운 격동의 모습이 동세가 강한 운동감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기와지붕의 민주 문은 마침 구름을 비껴 보이는 태양이 고개를 내밀면서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주항쟁 투사들의 모습이 연상되는 순간 갑자기 겨울의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서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진다. 왼쪽에 추모탑이 있었다.

이곳에서 광주항쟁이 진압된 뒤 얼마 되지 않은 6월 2일 일간신문에 실린 김준태 시인의 '아! 아! 광주여!' 라는 시를 감상하였다. 계엄 하에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시인의 생명이며 사명의 대가였다. 수많은 고통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는 순간 돌아서는 발길은 무거웠다.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불사조의 고향이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 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 있다. 확실히.....
굳게 뭉쳐 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1980년 6월 2일 아침에 쓰다. 글씨 금초 정광주〉

이곳에서 우측으로 돌아서니 추모탑의 좌·우측 5면에 일제의 총·칼에 항거

하는 청동 부조 군상이 새겨져 있었다. 밥솥에서 밥을 퍼주고 나르는 모습, 순서를 기다리는 행렬의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이었다.

5·18 추모관의 현관문 앞에는 연중무휴라는 문자디자인의 조그만 표지판이 보였다. 이곳에 입실을 하였다. 우측 벽면에 역사의 고비마다 나라를 지킨 민중의 역사가 사진과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1894년 : 동학농민운동 → 항일의병 투쟁 : 1895년 을미의병,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정미의병 → 1919년 : 3·1운동 → 1929년 : 광주학생독립운동 → 1960년 : 4·19혁명 → 1980년 : 5·18 민주화운동 → 1987년 : 6월 항쟁 → 1995년 : 5·18 특별법 제정 → 2002년 : 광주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립묘지 승격

1980년 5월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 유품을 보았다. 5·16 민족민주화 성화 후, 햇불 시위 당시 사용했던 햇불의 모형은 사각의 긴 나무막대 끝에 형철을 감고 맨 위에는 둥근 솜뭉치를 굵은 철사로 3번 묶여 있었다. 수많은 남녀노소의 광주 시민들이 불타오르는 햇불을 들고 어둠을 밝히며 항쟁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게 되는 순간의 광경이 연상되었다. 계엄군이 무차별 사격에 사용했던 진압용 M16 A소총과 대검, 진압봉도 보였다. 진홍색 피 묻어 빛바랜 옷, 피 묻은 돌, 보도블록 파편, 모형의 시체마네킹 등도 눈여겨 볼 수 있었다. 문득 “빼앗길 수 없었던 민주화의 봄은 또 다시 재현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역사의 강물을 따라 민주주의 샘의 벽면 가운데에는 인공의 짙은 암벽으로 담담하고 조용하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바로 민주화에 항거했던 시민들! 그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이었다. 흘러내리는 눈물, 작은 폭포줄기 아래에 사각의 통 안에는 수많은 피눈물들이 고여 있었다. 이 안에는 방문객이 던진 여러 개의 동전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작고 큰 돌이 2개 보였다. 거드랑이가 닿을 정도로 다소 깊었는데 가운데 구멍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들어 보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들어 올린 작은 돌에는 피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도 억압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억압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힘이 곳곳에서 느껴졌다. 주먹밥과 김밥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나눠주는 시장아주머니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피가 모자란다는 호소에 팔을 걷어 부치며 너도 나도 헌혈을 했던 시민들이 이 속에 있었다.

고(故) 문익환 목사(1988. 6. 1 ~ 1994. 1. 18 :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 통일운동가, 사회운동가, 참여시인)의 ‘그날이 오면’ 중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다.

아! 광주(光州)여!
광주의 겨레의 빛고을이여!
우리의 아픔 새겨
새록새록 돌아날 꿈이여!
밝아오는 새 아침이여!

염원의 벽 앞 책상 위에는 탑 모양의 두꺼운 플라스틱의 사각기둥 4개가 고층의 아파트처럼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옆 책상에서 준비된 메모지에 볼펜으로 호국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는 내용의 글을 짧게 기록한 후, 투명 통 속에 넣었다. 바로 이곳 방문객의 방명록인 셈이었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오후 3시 20분 추모관을 빠져 나와 오후 3시 45분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동북쪽에 위치한 김대중 컨벤션센터(Kimdaejung Convention Center for your Successful Business)와 5·18 자유공원, 상무대(옛 헌병대)를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버스는 오랫동안 시내를 관통하여 문화의 전당에 내려놓았다. 다시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전남대학교(5월 17일 전국에 내려진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왔던 전남대생들이 18일 오전 최초의 시위를 벌였던 북구 전남대 정문 일대는 하천이 복개되고 정문을 현대식으로 개조해 옛 모습과는 달라 보였다.)와 광주고등학교 교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두 학교 정문에는 4·19 발상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잠시 후, 김대중 컨벤션 5번 출구의 계단에 올라서서 큰 도로를 건너게 되었다. 광장에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수대가 있었고, 그 가까이에 우뚝 서있는 대형 건물이 보였다. 출입 현관 전면 중앙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라고 기록된 문자 디자인을 볼 수 있었다. 입장료는 없었으므로 그대로 현관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섰다. 왼쪽 다소 비좁은 정도의 작은 실내공간을 최대한 유효 기념전시실로 마련해 놓았다. 여기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전(前) 대통령(金大中 : 1924 ~ 2009, 제15대 대통령 : 1998. 2 ~ 2003. 2)의 소형의 흉상, 동영상, 각종 인쇄물, 친필 서간문, 소장품, 그밖에 기념품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2005년 9월 6일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 당시 방문하시고 남긴 글도 눈에 띄었다. 그 친필 서체는 ‘事人如天’ (“사람 섬기기를 하늘 같이 하라!”)이었다. 그

리고 2007년 10월 5일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서 쓰신 서체는 ‘平和를 위하여’ 이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면모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남과 북, 모든 국민을 생각했던 고뇌에 찬 모습이 상기되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는 세계적 브랜드 가치가 높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으로 김대중 홀, 콘코스 홀, 야외공연장 등이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 아무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지니고 이곳 방문하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시 아쉬움을 뒤로 하고 다음 기념 장소로 이동하였다.

이곳에서 자리를 옮겨 도로 길 건너 인도를 따라 걸었다. 조금 걸으니 상무대 건물이 보였다. 5·18 자유공원은 1만평의 부지 내 4,000평에 옛 상무대 법정과 영창 등 7동 원형 그대로 복원하여 재현되어 있었다. 정문을 찾지 않아 닫힌 후문 앞에 서서 조금 기다리다 보니 담당 젊은이가 문단속을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다가온다. 이곳에 오게 된 사유를 전했다니 반갑게 환영을 해주었다.

후문이 열리면서 들어서자 바로 우측에는 트럭 위에서 총을 겨누고 경계하는 모형헌병이 있었으며, 차량 아래에서는 5명의 시민이 포승줄에 묶여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역시 계엄군이 총을 겨누고 경계를 하고 있었다. 광주 시내에 있던 상무대는 현재 장성군으로 옮겨가고 이 자리에 기념공원과 자유공원이 만들어졌다. 상무대 감옥 근처에 만들어진 자유공원에는 아담하게 기념관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광주항쟁의 전개과정이 잘 담겨져 있었다. ‘자유관’이라고 이름 지은 것처럼 우리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었다.

영창과 법정을 재현한 곳, 안내소, 헌병대, 자유관, 중대 내무반, 헌병대 식당, 헌병대본부 사무실, 창고, 식기세척장, 야외화장실, 주차장도 있었다. 법정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볼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는 숙소로 귀가할 시간이 되었다. 곧 사무실에 들러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5·18 기념재단에서 제작한 5월의 노래 CD와 소책자를 방문 기념물로 받아 들고 아파트 도로 앞 정문을 빠져나오니 오후 6시가 조금 넘어 발길을 숙소인 광주교육대학교 생활관을 향해 옮겼다.

이곳 상무대 영창에서 온갖 고생을 당했을 시민들 모두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한 목소리를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대동단결을 해야 할 것이다.

31년 전(前) 20대 혈기 왕성했던 민주 열사는 벌써 중년이 되어 후배들에게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아름다웠던 기억이자 아픔이기도 한 광주항쟁에 대해 전달했다. 광주항쟁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민주화운동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시민 전체가 항쟁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친 역사는 고귀한 상징이다.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시대의 영원한 아픔이다. 이들은 아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희망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광주를 찾아 직접 당시의 현장을 느껴보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5·18은 광주만이 간직한 세계적인 자산이다. 항쟁 사적지를 중심으로 5월을 재조명하여 광주를 창조적 민주 인권 도시로 알리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금남로 햇살이 따사로운 5월의 어느 날 오후
소년은 얼룩덜룩한 군복차림에 빛나는 착검을 하고
보부도 당당하게 위협적으로 행진하는
낯선 방문객을 호기심과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육중한 군용트럭에서 뛰어내려 대오를 정렬하고
천천히 전진하는 대열을 옆에서 따라간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너는 신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낮익은 도로에 피를 흘려야 했다.
네 죽음을 보듬고 광주의 밤은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죽어서 한결 가벼워진 네 영혼은
오히려 죽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소리 높이 울었다.

단 며칠의 항쟁들을 끝으로 너를 겨누 총부리 앞에
네 이웃 모두가 무릎을 꿇었던 그날!
인류의 양심에서 흐를 것인가?

내던진 네 죽음은
죽음에 떠는 동포의 치욕으로 역(逆)으로 싹트는 것일까?
싹은 비정의 수목들에서 보다 치욕의 푸른 멍으로부터
자유를 찾는 네 뜨거운 핏속에서 움튼다.

광주 항쟁과 5월의 광주를 기억하기 위해 홍성에서 광주까지 향한 발걸음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민주 인권의 성지 광주를 떠나게 되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의 날씨는 뿌연 안개가 차창의 시야를 가리는 듯 하더니 이내 밝아오면서 맑은
날씨로 변해가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광주를 찾게 되기를 바라면서 민주 인권의 성지 광주의 5월의 항
쟁 노래를 감상하였다.

봄 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붉은 꽃잎 저 흩어지고 꽃향기 머무는
묘비 없는 죽음에 커다란 이름 드리오!
여기 죽지 않은 목숨에 이 노래 드리오!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이렇듯 봄이 가고 꽃피고 지도록
멀리 오월의 하늘 끝에 꽃바람 다하도록

해 기우는 분수 가에 스였던 낮이 살아
양천의 눈매 되뜨는 이 짙은 오월이여!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부 록]

1. 5·18 광주항쟁

시민운동에서의 희생은 1988년 제6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의하면 사망 191명, 부상 852명이었다. 그 희생은 6·25전쟁(한국동란,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희생자를 낸 사건이었다. 그 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책임자 처리 등 사후처리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이어졌다.

2. 국회 광주특별위원회 구성(1988년)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정(1995년) -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희생자 묘역 성역화 - 5·18 민주화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제정(1997년) - 역사교과서에 정식 명칭 사용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광주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졌다. 중요한 것은 5·18 광주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되어 5·18 민주화운동으로 명명되었다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정부주관 기념행사를 가지게 되었으며, 2011년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3. 김대중 컨벤션센터(Gwangju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GEXCO)

국제적인 전시회 또는 컨벤션을 주관 개최하거나 컨벤션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활동의 파급력이 미약한 현실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말기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배려로 사업예산의 일부를 확보하게 된 점과 이미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국제적으로 인지된 이 지역 출신인 김대중이란 인명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김대중 대통령의 사전허락을 받고, 광주시민의 여론과 수렴절차를 거쳐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개관 전(前) 개명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2005년 9월 7일 개관하였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 11,966평 규모와 당시 전시 컨벤션센터 산업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일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합토제(合土地) : 5·18 묘역 입구

우리는 5·18 영령의 송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며 전국 각 지역의 흙을 한데 모아 합토제(合土祭)를 갖고 민족의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알이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2004. 5. 16 머슴굴 모임)

5. 묘역안내

묘지는 총 3,000평(1기당 3평 기준), 총 784분을 모실 수 있고 안장순서는 사망일자 순으로 되어있다. 1묘역과 2묘역 52번(1묘역 29번 제외)까지는 80년 당시 사망하신 분, 나머지 묘역은 80년 당시 부상 및 구속·구금되신 이후 사망하신 분들이 안장되어 있다.

6. 5·18 민주화 운동 공인 사적지

- (1) 전남대 정문 : 5·18 진원지
- (2) 광주역 광장 : 520 계엄군과 격전
- (3) 옛 대인동 공용터미널 일대 : 계엄군과 수차례 격전
- (4) 전남 도청 : 시민군 본부 및 최후항전
- (5) 옛 광주YMCA : 시민군 작전회의
- (6) 옛 광주문화방송(MBC) : 왜곡보도 항의 방화
- (7) 옛 장동 녹두서점 : 항쟁대책 논의 및 현수막 화염병 제작
- (8) 조선대 : 계엄군 주둔 및 시민 연행
- (9) 학동 배고픈 다리 : 시민군 지역방위 거점
- (10)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진월, 송암동) : 계엄군이 저수지 목욕을 하는 어린이 조준 사살, 계엄군 간 오인사격으로 사망자 다수 발생
- (11) 농성광장 :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 시민대표들의 죽음의 행진 장소
- (12) 옛 상무대 : 계엄사령부 전남북부분소로 수습위원간 협상 진행
- (13) 양동시장 : 시민군들에게 주먹밥 등 물품 제공
- (14) 광주공원 광장 : 시민군 편성 및 사격훈련
- (15) 광주교도소 : 시민군과 계엄군의 격전지, 시민군 수용 고문
- (16) 옛 화전동 국군광주병원 : 부상자 강제치료 및 수용조사
- (17) 옛 쌍촌동 505 보안부대 : 민주시민 연행 고문조사

7.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http://altail.chonnam.ac.kr/~518>

8. 5·18 기념재단 : <http://www.518.org>

아름다운 약속

최규원 | 홍성경찰서 · 홍성문화원 회원 |

금년 봄에 있었던 약속을 오늘에서야 지켰다.

나는 싹이 움트는 봄이면 산행을 자주한다. 약초도 캐고, 산나물도 채취하려고 잦은 산행을 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개복숭아를 많이 따고 싶어 예전에 보아둔 곳으로 배낭을 메고 차를 몰았다. 평소 산행을 하면서 산 중턱에 개복숭아나무가 많이 있는 곳을 눈여겨보아 두었기에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산 구비를 힘들게 두 봉우리나 넘어 찾아가 보니, 이런! 개복숭아나무가 있던 곳이 험하다. 별목으로 그곳에 있던 나무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산자락 밑에 차를 대고 쉽게 올라올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다른 약초를 찾아가며 산행을 하고 싶어 봉우리를 두 개나 넘어온 것이다. 넘어오면서 지금은 흔하지 않은 잔대를 여덟 뿌리나 캐기는 했지만 막상 목적인 곳에 다다르니 힘이 쭉 빠져 버렸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그래도 별목이 이루어진 곳 밑으로 베어지지 않은 개복숭아나무 두 그루를 발견하고 가보니 제법 과실이 달려있었다. 아쉬운 대로 두 그루의 개복숭아를 따서 배낭에 넣고 다시 온 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개복숭아는 기관지나 관절에 매우 좋은 약재로 술을 담거나 효소를 만들면 아주 좋은 약재이다. 집에 돌아와 채집한 개복숭아를 달아보니 6kg 정도가 되

었다. 내가 생각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그렇게 그날을 보내고 며칠 뒤, 아는 선배에게 귀 동냥을 하여 월산에서 구항 방면으로 이어지는 산길에 개복숭아가 많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장소를 확인하러 가보았다. 실상 나무는 많이 있었는데 이미 누군가의 손을 탔는지 열매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산길을 돌아 마을로 내려오는데 작은 밭 언저리에 개복숭아나무가 한 그루가 서있는데 제법 과실이 달려있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하려고 나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나이가 지긋하시고 허리가 약간 굽으신 할머니 한 분이 언덕길을 내려오신다.

“할머니, 이 밭 할머니 밭이세요?”하고 여쭙보니

“왜 그러세요?”하고 할머니께서 되묻는다.

“네. 할머니, 여쭙볼게 있습니다.”

“저기 개복숭아나무 할머니네 것인가요?”하고 다시 여쭙보니

“그것은 무엇에 쓰게?”하고 다시 물으신다.

“네. 할머니, 파다가 효소 내렸으면 해서요.”하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어디에 좋은데?”하고 또 묻는다.

“네. 할머니, 개복숭아가 관절에 좋다고 합니다.”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따라라고 하신다. 매년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파가고 할머니는 한 번도 따 본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따라라고 하신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와서 따겠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고 그곳을 나왔다.

다음날 아침 아내와 함께 더위를 피해 일찍 집을 나섰다. 할머니 밭에 도착하여 차를 길 가장자리에 세워놓고 개복숭아를 따기 위해 밭으로 들어갔다. 차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머니께서 나오셨다. 아내와 함께 개복숭아를 따고 있으니 옆으로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다.

자식들은 모두 타지에 나가있고 할머니 혼자서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여쭙자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신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집이 내 머리에 스쳤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약주를 좋아하셔서 내가 순찰차로 두 번 모셔다 드린 기억이 있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 그

렇다고 하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며 웃으신다.

그렇게 한 20분 정도를 개복숭아를 따고 보니 제법 많다. 밭을 나오면서 할머니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고등어자반이라도 사다가 드릴게요.”하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달아보니 10kg이나 되어 즐겁게 효소를 만들어 놓았다.

아마도 그때가 5월 말경이 아닌가 싶다. 마음은 있었는데 무엇이 바쁜지 할머니와의 약속을 입으로만 되뇌며 실행을 하지 못했다.

8월 1일 홍성 장날이다. 근무복을 갖추어 입고 오후 시간 내 무더위 속에 장을 순찰하던 중 할머니 생각이 다시 났고 고등어가 눈에 들어왔다. 가격을 물어보니 세 손에 오천원 이란다. 만원 지폐를 내니 고등어자반 일곱 손을 비닐 봉지에 담아 주신다.

그길로 차를 몰아 할머니 집을 찾았다. 마실 나가셨는지 할머니께서 계시지 않았다. 앞집에 사시는 분을 불러 할머니 계신 곳을 수소문 하였으나 마실 나가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경찰관이 왜 할머니를 찾으냐고 하신다. 사정 말씀을 드리고 아저씨가 보는 앞에서 할머니 댁 문을 열고 들어가 사가지고 간 고등어자반을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나왔다.

내 가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돌아오는 내내 나는 웃고 있었다. 할머니 덕분에 내가 더 기분이 좋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할머니께 그렇게 해 드리고 나니 양어머니 생각이 나서 다시 장으로 갔다. 고등어자반을 사다가 양어머니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나왔다.

너무도 즐거운 하루가 아니었나 싶다. 고마운 할머니와의 약속을 조금 늦게 지킨 것이 아닌가했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운 약속은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추억이 되어 남아 있을 것이다.♠



보개산 기슭에 숨어있는 향토문화재

寶蓋山の寶物 連山徐氏 石譜

보 개 산 보 물 연 산 서 씨 석 보

서용희 | 홍성문화원 회원 |

1. 송조 정신

한 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에 달려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조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조로부터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이어줄 수 있도록 오늘의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나의 뿌리인 '연산서씨 석보'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서씨의 내력

서씨(徐氏)는 옛 문헌에는 165 본이나 되지만 현존하는 서씨는 10여 본으로

그 중 연산서씨는 이천서씨(利川徐氏) 시조(始祖)인 서신일(徐神逸)의 10세손(世孫)인 서직(徐稷, 전서공파(典書公派))의 아들 연성군(連城君) 서준영(徐俊英)이 분적(分籍)하여 연산시조(連山始祖)가 되었다.

이래로 현재까지 세계(世系)로 이어지고 있으며 집성촌으로는 보개산 기슭인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 내현리에 분포되어 있다.

3. 석보(石譜)를 제작보관하게 된 사유

석보(石譜)는 족보(族譜)를 돌, 즉 연석(硯石)에 음각한 것이다. 석보의 연대는 1853년경(160년 전)으로 그 시대상을 살펴보면 선조(宣祖)의 선정에도 불구하고 1592년의 임진왜란, 1596년 홍주의 이몽학의 반란 그리고 광해조의 폭정을 거쳐 인조반정, 병자호란, 4대 사화의 내란과 12사화(士禍)에서 파생된 사색(四色) 당쟁(黨爭)등으로 사대부(士大夫)의 가계(家系)가 흔들리고 생사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거치니 족보의 보존을 기약할 수 없는 세파를 고려하여 석보를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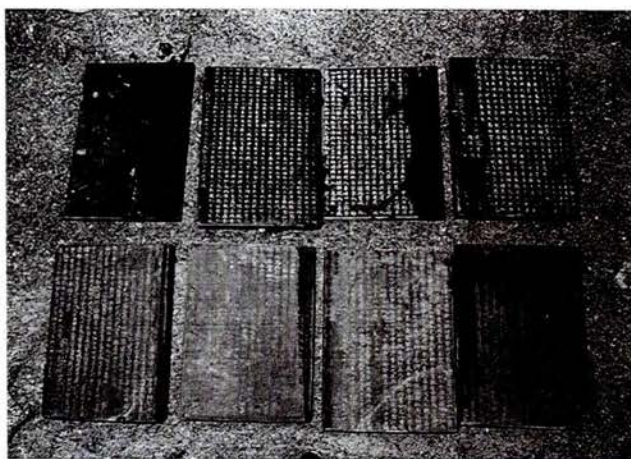
4. 연산서씨의 석보 문화재 지정

연산서씨 시조 서준영의 14대손(1853년) 승지공파(承旨公派) 성중(誠中), 현중(珣中), 대중(大中) 3종형제(從兄弟)는 석보의 제작사유를 ‘連山之徐(연산지서) 不知上古年代(불지상고연대) 以其失傳之故也(이기실전지고야) 爲其子孫者(위기자손자) 豈不痛悶而(기불통민이) 安知將來之 不如今也(안지장래지불여금야)’라고 개탄(慨歎)하고 정정세거지(定鼎世居地)라고 기술되어 있다.

보개산(寶蓋山) 기슭인 홍성군 구항면 지정리(덕은동) 산 112번지에 암석(巖石)을 뚫어 가로 40cm, 세로 30cm의 암고(巖庫)를 만들고 석보(石譜)는 오석(烏石)으로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6cm, 두께 3cm 정도로 4판이 봉안되어 있으며 총 4,500여자로 연산서씨 세계가 음각되어 있다. 1996년 12월 5일 후손들에 의해 암고(巖庫)가 개봉되었으며 이듬해인 1997년 8월 5일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54호로 지정되었다.



連山徐氏石譜(族譜)



- 年代: 1853年 7月(崇禎紀元後四 癸丑秋七月記)
- 材料: 硯石(烏石)
- 形式: 硯石陰刻
- 數量: 8張
- 規格
 - ・ 1853年 寫真1-36.7cm×25.5cm×3cm(連山徐氏族譜: 茂長公派)
 - ・ 1853年 寫真2-36.2cm×26.5cm×3.2cm(司評公派)
 - ・ 1853年 寫真3-35.8cm×25.5cm×3.8cm(司評公派)
 - ・ 1853年 寫真4-35.5cm×26.2cm×2.7cm(參判公派) 承旨
 - ・ 1889年 補譜 寫真5-37.7cm×26.5cm×3.9cm(橫正公派)
 - ・ 1889年 補譜 寫真6-38.0cm×26.5cm×3.0cm(通德郎公派)
 - ・ 1889年 補譜 寫真7-36.5cm×26.5cm×2.0cm(衛率公派)
 - ・ 1996年 補譜 寫真8-38.5cm×25.7cm×2.2cm(承旨公宗派)

(打本別添)





문화원, 문화학교 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대성황”

14개 강좌, 300여명 수강생 기량 맘껏 선보여

홍성문화원(원장 유환동)에서는 2013년 12월 29일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문화학교 발표회가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발표회는 문화학교 가족 및 지역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양화, 문인화, 한문서예 등 8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 전시회와 난타, 스포츠댄스 등 14개 강좌 수강생들이 1년간 배우고 익힌 기량을 맘껏 선보여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은 연인원 300여명에 달한다. 열린문화공간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홍성문화원은 지난 1965년 1월 26일 문화공보부장관 민법32조 규정에 의거 사단법인 홍성문화원으로 설립된 이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 문화진흥의 선봉 역할을 해 왔다. 특히 지역정체성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향토문화 계승, 보존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 차원 높은 문화보급운동을 업그레이드 시켜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적 자질 계발을 육성해 지역 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 도모에도 앞장서고 있다.

유환동 원장은 “지역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정서 또한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문화의 발전이 곧 지역의 발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문화원은 열린문화공간으로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홍성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주최/주관 : 홍성문화원 후원 : 홍성군



| 대상 | 1910년대 홍성시애원(최초의 사회복지시설로 지금의 유치원이 아닐까 추측) / 출품인 : 김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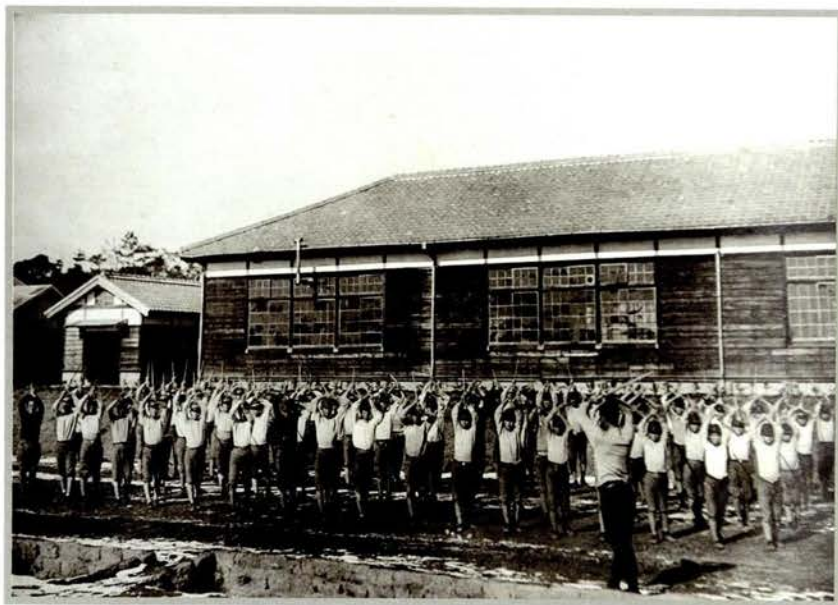
| 금상 | 1938년경 학생 가마니 찢기 경진대회 / 출품인 : 최종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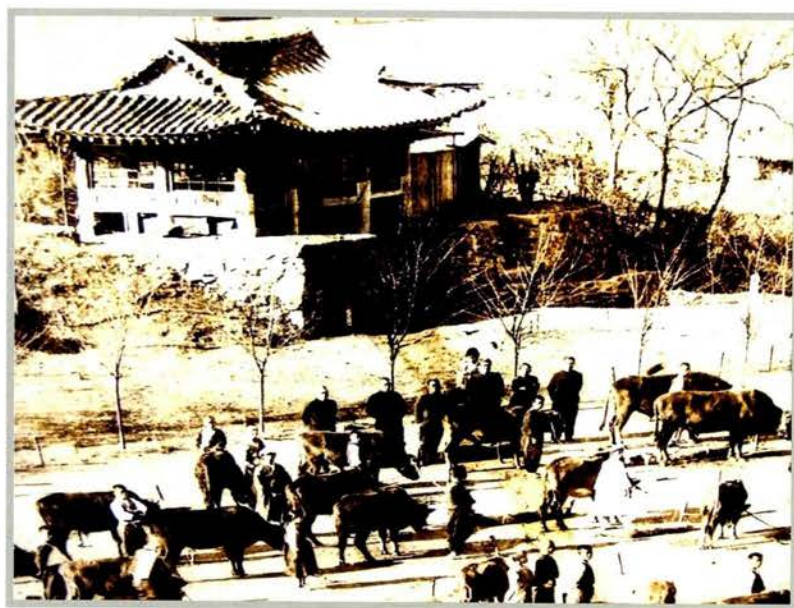
|은상| 1926년 결성객사(결성관)와 제14회 결성공립보통학교 졸업(현재 결성초등학교) / 출품인 : 황성창



|동상| 1946년 홍성공립제1국민학교 졸업(현재 홍성초등학교) / 출품인 : 장관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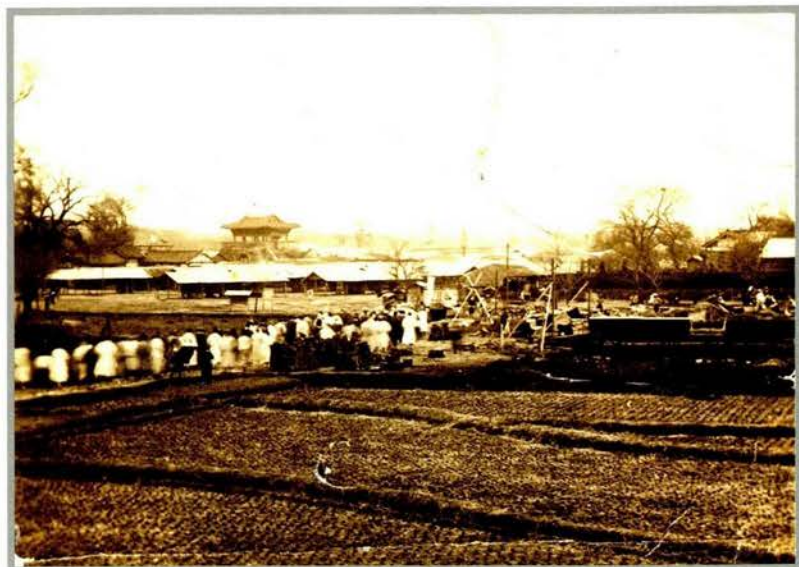
|동상| 1931년 홍성공립보통학교 목검체조(현재 홍성초등학교) / 출품인 : 김선권



|입선| 1938년경 매년 학생 소사육 품평회 / 출품인 : 최종돈



|입선| 1930년대 홍성유치원 졸업식 / 출품인 : 김대경



|입선| 1934년 조부모님 장례식 행렬과 조양문(동문) 전경 / 출품인 : 장관섭



|입선| 1937년 일제강점기 홍성 금마총과 홍양청난비 / 출품인 : 조남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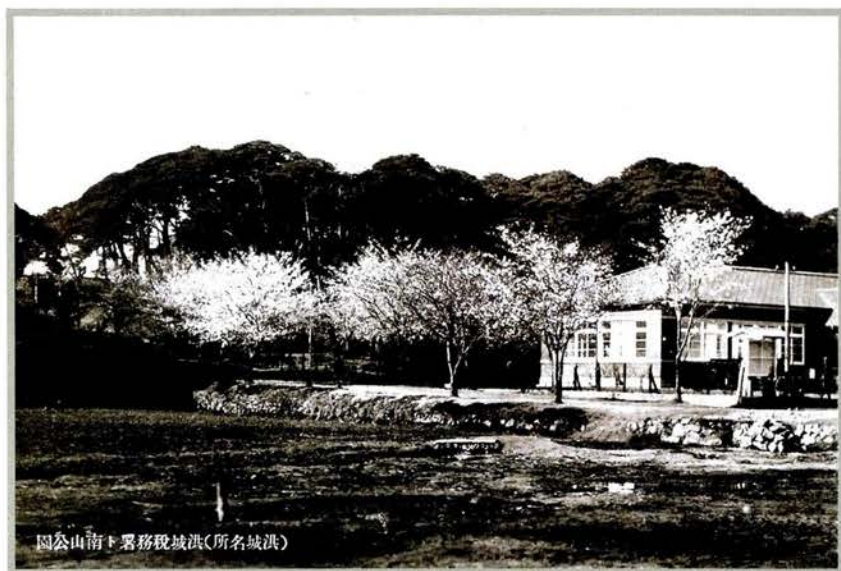
|입선| 1970년대 동보극장 전경(현재 하나빌딩 자리) / 출품인 : 임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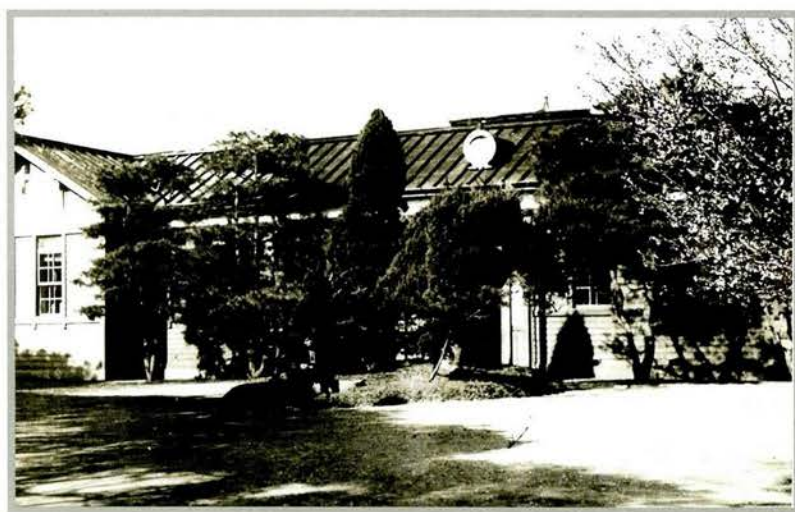
|입선| 1968년 펌프질하는 아이 / 출품인 : 신소대



|입선| 1931년 홍성공립보통학교 등불 만들기(현재 홍성초등학교) / 출품인 : 김선권



| 입선 | 1930년대 홍성세무서와 남산공원 전경(현재 홍주성역사관 자리) / 출품인 : 주남수



| 입선 | 1930년대 초반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현재 홍주성 옥사자리) / 출품인 : 박상명



|입선| 1937년 웅암리 포구와 나룻배 전경 / 출품인 : 모영선

2013 하반기 홍성문화원 행사

2013 홍성군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간



- 일 자 : 3월 ~ 12월 12회 실시
- 장 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 대 상 : 지역주민
- 공연(전시)단체 : 총 12팀 선정
- 내 용 :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게 공연장(전시실)을 무료 개방하여 가요, 국악, 사물놀이, 밴드연주, 연극, 미술작품 등의 공연(전시)을 통해 지역공연문화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열린 문화원의 참모습을 보여주고자 함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 일 자 : 4. 8(월) ~ 10. 31(토) 7개월간
- 대 상 : 지역주민 누구나
- 내 용 : 옛 홍성의 자연경관, 문화유적, 생활상, 발전상, 건조물, 골목 등 홍성과 관련된 모든 개인 소장사진 공모 실시

제8회 여름전통문화학교



- 일 자 : 7. 29(월) ~ 8. 2(금) 5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김좌진 생가지, 한용운 생가지, 만해체험관
- 대 상 : 홍성관내 초등학교생 40명
- 내 용 : 우리고장 문화알기, 전통예절교실, 다도교실, 단청교실, 짚풀공예교실, 야생화교실, 영화감상, 문화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문화를 올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및 대화의 자리 마련

제18회 만해추모제 및 추모음악회



- 일 자 : 8. 31(토)
- 장 소 : 만해생가지
- 대 상 : 홍성관내 기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 내 용 : 만해제를 통하여 만해 한용운 선사의 높은 뜻을 이어받고, 청소년들에게는 자긍심 고취 및 주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 (만해문학강연, 만해백일장 및 사생회화대회, 만해추모다례, 만해추모음악회, 만해문학의밤, 만해한용운자료사진전, 만해문학체험, 만해포토존 등의 프로그램 실시)

제14회 가족과 함께하는 거리영화제



- 일 자 : 9. 12(목)
- 장 소 : 홍성군청 여하정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영화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좋은 영화를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여가문화 조성 ('7번방의 선물' 무료 상영)

제9회 홍성내포문화축제



- 일 자 : 9. 26(목) ~ 9. 29(일) 4일간
- 장 소 : 홍주성 일원
- 대 상 : 지역주민 및 축제관람객
- 주 최 : 홍성내포문화축제추진위원회
- 내 용 : "충 무민공 최영! 절 매죽헌 성삼문!"을 주제로 한 홍성의 역사인물 축제 개최

2013 하반기 홍성문화원 행사

우리문화 알아보기 (남원문화탐방)



- 일 자 : 10. 4(금)
- 장 소 : 전북 남원 광한루원, 만인의총, 보절 관음사, 남원 혼불박물관
- 대 상 : 지역주민 및 문화학교 수강생
- 내 용 : 지역주민 및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 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 일 자 : 11. 11(월), 12. 19(목)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 내 용 :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에 접수된 70여점의 사진에 대해서 6명의 심사위원이 역사성, 가치성 등에 의하여 수상작 심사 및 결정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입선 10명)

문화학교 전시발표회 "문화한마당 큰잔치"



- 일 자 : 11. 29(금)
- 장 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 대 상 : 문화학교 수강생 및 지역주민
- 내 용 :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와 함께 다양한 초청공연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자리 제공 (한문서예, 서양화, 문인 화교실 작품전시 및 난타, 댄스스포츠, 요가, 아코디언, 국선도, 노래, 색소폰, 필라테스교실 시연)

제6회 홍성 옛사진 전시회



- 일 자 : 12. 19(목) ~ 12. 21(토) 3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전시실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제4회 홍성 옛사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30여점 전시. 추억의 옛사진 전시회를 통해 홍성군민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우리문화 알아보기 (공주문화탐방)



- 일 자 : 12. 20(금)
- 장 소 : 공주 국립공주박물관, 부여 능산리 고분군, 국립부여박물관, 백제역사문화관, 백제원
- 대 상 : 지역주민 및 문화학교 수강생
- 내 용 : 지역주민 및 문화학교 수강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를 탐방.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 제공

주민과 함께하는 목요일영화



- 일 자 : 매주 목요일
- 장 소 : 홍성문화원 1층 공연장
- 대 상 : 지역주민
- 내 용 :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좋은 영화를 매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

2013 하반기 홍성문화원 행사

문화학교 강좌



- 일 자 : 연중 운영
- 장 소 : 홍성문화원
- 대 상 : 지역주민 (매회 각 20명)
- 내 용 : 한글서예교실, 국선도교실, 명리학교실, 요가교실(전통요가 / 필라테스), 노래교실, 중국어교실, 댄스스포츠교실, 난타교실, 아코디언교실, 문인화교실, 풍수지리교실, 색소폰교실, 서양화교실, 한문서예교실 등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교육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회 제공

음악감상실 및 향토도서관 운영



- 일 자 : 연중 운영
- 장 소 : 홍성문화원 2층 음악감상실, 향토도서관
- 대 상 : 지역주민 및 문화원 회원
- 내 용 : 문화가족 및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위한 작은 공간 제공. 문화원 회원들에게는 도서관의 모든 도서 및 자료(DVD, CD) 열람과 대출 제공

「홍성문화」발간



- 발 행 : 연중 2회 (6월, 12월)
- 발행부수 : 각 1,000부
- 내 용 :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책자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무료 배포하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다양한 문화정보와 소식을 제공

「삼준산 주변의 솔바람길 이야기」발간



- 발 행 : 12월
- 발행부수 : 1,000부
- 내 용 : 홍성의 삼준산의 역사이야기와 전설 및 문화재 소개를 주변경관과 더불어 소개하고 있음

2013 홍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2013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결성 성호리 동제 기록화 사업”



- 일 자 : 3월 ~ 11월 9개월간
- 장 소 :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마을
- 대 상 : 결성면 마을주민
- 내 용 : 잊혀져가는 무형문화자산인 결성 성호리 동제 (오방제)를 널리 알리고, 원형보존과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자료집과 영상물(DVD)을 기록화 및 재현하여 향후 마을 관광자원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013 어르신 문화동아리활성화 “아코디언 앙상블”



- 일 자 : 4월 ~ 10월 14회 교육 / 5회 공연
- 장 소 : 홍성문화원, 유일원, 장수원, 라온의 집, 홍주요양병원 등
- 대 상 : 지역주민 및 시설어르신 (동아리인원 9명)
- 내 용 : 어르신 아코디언 동아리의 지속적 관리와 보수 교육, 공연관람을 통하여 문화나눔봉사단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며 문화소외계층에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 나눔실현 기대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013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홍성문화나눔봉사단 행복콘서트”



- 일 자 : 5월 ~ 11월 6회 교육 / 9회 공연
- 장 소 : 유일원, 홍성문화원, 서부면 속동마을, 홍성내포 문화축제장, 용봉산, 장곡초등학교, 한누리 등
- 대 상 : 지역주민 및 축제관람객 (봉사단원 50명)
- 내 용 : 홍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을 주축으로 하는 공연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양로원, 보육원, 요양원 등 소외시설 및 관내 축제장으로 찾아가는 공연 실시. 국악, 민요, 가요 등 문화나눔공연을 함으로써 생생한 감동과 문화적 봉사의 의미, 좋은 문화를 함께 만들고 보급시키는 문화운동의 기반마련

2013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여름농촌민속공예학교”



- 일 자 : 8. 5(월) ~ 8. 8(목) 4일간
- 장 소 : 홍성문화원, 아산시 현충사, 온양 외암민속마을
- 대 상 : 홍성관내 초등학생 40명
- 내 용 : 조롱박과 짚풀을 이용한 민속공예품 만들기 체험과 야생화 가꾸기를 통한 자연체험학습으로 선조들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함

2013 흥성문화원 공모사업 선정 프로그램

2013 만해체험관 교육체험프로그램 “만해 한용운 선사와 함께 떠나는 역사체험여행!”



- 일 자 : 8월 ~ 12월 5개월간
- 장 소 : 만해체험관 및 생가일원, 만해기념관, 심우장, 설악산 백담사 등
- 대 상 : 청소년(초,중) 및 지역주민
- 내 용 : 만해체험관을 문화교육시설로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 청소년, 문학인 등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해체험관의 활성화를 통해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자 함 (만해문학강연 및 도전 골든벨, 만해문학체험, 만해문학체험의 밤 및 만해시낭송회, 만해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 실시)

2013 권역별 어르신문화축제 “충남 문화홍보단들의 한마당”



- 일 자 : 11. 7(목)
- 장 소 : 흥성문화원 1층 공연장, 2층 전시실
- 대 상 : 충남도내 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어르신
- 주 관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지방문화원
- 참여문화원 : 충남도내 11개 문화원(12개 프로그램)
- 참여어르신 : 총 320여명 / 10여명
- 내 용 : 도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해당문화원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어르신축제를 통한 어울림 한마당 마련. 공연 및 전시를 통한 성과발표 및 실력향상과 자아실현의 계기마련 (흥성문화원 아코디언 앙상블(아코디언 연주) 공연 실시)

2013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교류활성화
“음악을 통한 마음교류 아름다운 청춘콘서트”



- 일 자 : 11. 14(목)
- 장 소 : 충남도청, 수덕사
- 대 상 : 지역주민
- 주 관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온양·예산·홍성문화원
- 참여문화원 : 온양문화원, 예산문화원, 홍성문화원
- 참여어르신 : 총 50여명 / 10여명
- 내 용 : 문화공연 교류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 창조 문화 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어르신세대 문화융성의 기반 마련 (아코디언(온양, 예산, 홍성), 색소폰(홍성), 통기타(홍성), 하모니카(예산) 음악공연 실시)

“따뜻하고 정겨운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홍성문화에 여러분의 감성을 뽐내시는 것은 어떠실지...
짧은 시, 글, 사진 등 사랑을 표현하는 감성은 많습니다.
홍성문화원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홍성문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소설, 칼럼, 에세이, 시 : A4 2장-5장, 글자 10POINT
- 4컷 혹은 8컷 카툰 : 14x15cm · 1654x1772픽셀 이상, 300dip의 jpg 파일 형식
- 사진 또는 그림 이미지 : 1654x1772픽셀 이상

◆ 보내실 곳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홍성문화원 사무국

- TEL : 041)632-3613
- FAX : 041)633-1199
- E-mail : hongsung3613@hanmail.net

◆ 비 고

원고를 송부하실 때에는 성명, 전화번호를 꼭 기재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필자의 사진과 원고 관련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홍성문화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홍성문화원 일반회원 모집 안내 |

홍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입니다.

☎ 대상 : 누구나 · 연회비 : 50,000원 ☎

총회 의결권 부여
(12개월 이상 납부자)

홍성문화원 회원증 발급

정기간행물인 「홍성문화」
무료 우송

향토유적 답사 및
기행프로그램에 우선 초대

각종 문화예술행사에
우선적으로 초청

문화학교 강좌 프로그램의
수강료 30% 할인

홍성문화원 도서관의 모든 간행물 및 자료(DVD, CD) 열람 및 대출

회원가입은 문화원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 ☎041)632-3613



Hongseong Cultural Center

역재방죽과 함께하는 홍성문화원

홍성문화원은 일제 침략과 6.25 사변이후 농촌의 생활면에서 침식 풍마된 압농사상과 도의 및 윤리 생활면의 퇴폐된 불신과 부정의 사회적 사조와 요소의 근인이 되어 민심의 불안저오가 민간생활의 양극성을 초래하였기에 국민생활의 건전한 기풍진작과 민심순화를 위한 공보계몽사업의 필요성과 향토문화사업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당시 안상혁씨께서 문화원 설립을 착상하고 이를 추진키 위하여 홍성군 관내 각기관장 및 유지 연석회의에서 설립 추진을 결의하고 홍성문화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문화원 창설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1954년 3월 안상혁(安相赫) 초대 원장이 취임, 1956년 9월 2대 원장에 전영희(全永喜), 1960년 10월 3대 원장 김동주(金東宙), 1961년 12월 4~9대 원장 주연종(朱連鍾), 1984년 5월 10대 원장 오준영(吳駿永), 1987년 3월 18일 11~13대 원장 황규철(黃圭喆), 2004년 12월 14,15대 원장 이하영(李夏永), 2004년 12월 16,17대 원장 전용택(田溶澤), 2012년 12월 18대 유환동(俞煥東)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회원이 홍성의 문화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홍성문화원은 지역주민들의 열린 문화공간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배움의 터는 물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자기계발의 발판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9년 11월 23일 충청남도등록 충남바01100호 / 발행인 · 유환동 / 편집인 · 홍성문화편집위원회
발행일 · 2013년 12월 / 발행처 · 홍성문화원 / 인쇄처 · 피플디자인 ☎ 041-633-5290

350-801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951번길 16 TEL 041-632-3613 E-mail hongsung3613@hanmail.net
편집주간 · 조성미 / 편집위원 · 김정현 · 조원찬 · 조남민 / 편집디자인 · 김기연 · 조창희